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일 시

2026년 4월 16일(목) 오후 1시 40분~

장 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프로그램

13:00~13:40	등 록	
개회식		
13:40~14:00	개회사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기념촬영	
<제1세션> 지정학적 격변의 시대, 평화의 향방		
14:00~15:40		좌장 백지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트럼프 2.0,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그리고 한반도	발표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토론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의 향방과 중동 평화의 미래	발표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토론 황의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트럼프 2기 정부 하 한반도 문제의 곤경	발표 차태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토론 강석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15:40~16:00	휴 식	
<제2세션>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 성찰과 전망		
16:00~17:40		좌장 윤지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통일·평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구축의 성과와 과제	발표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일기반에서 평화기반으로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역량 구축 10년의 성찰과 다음 단계	발표 문진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북한 농업과 농정에 대한 연구"의 의미와 성과	발표 임정빈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한반도 에너지와 자원의 미래지향적 협력	발표 박형동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탈북작가 장편소설: 인간모독소·약산의 진달래·철과 흙	발표 방민호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종합토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기념식 행사

사회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17:40~18:00	등 록
18:00~19:00	개회 및 내빈 소개
	기관장 기념사
	내빈 축사
	창립 2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축하공연: 서울대학교 성악과 중창단
	기념 촬영
19:00~21:00	만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Ⅰ <제1세션> 지정학적 격변의 시대, 평화의 향방

- **트럼프 2.0,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그리고 한반도** P.9
발표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토론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의 향방과 중동 평화의 미래** P.21
발표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토론 **황의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트럼프 2기 정부 하 한반도 문제의 곤경** P.35
발표 **차태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토론 **강석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Ⅰ <제2세션>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 성찰과 전망

- 통일·평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구축의 성과와 과제 P.47
발표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일기반에서 평화기반으로 P.61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역량 구축 10년의 성찰과 다음 단계
발표 문진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북한 농업과 농정에 대한 연구"의 의미와 성과 P.93
발표 임정빈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 한반도 에너지와 자원의 미래지향적 협력 P.107
발표 박형동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탈북작가 장편소설: 인간모독소·약산의 진달래·철과 흙 P.123
발표 방민호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종합토론 P.13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제1세션> 지정학적 격변의 시대, 평화의 향방

트럼프 2.0,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그리고 한반도

발표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토론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IPUS 창립기념학술회의 (2026.04.16)

트럼프 2.0, 2개의 전쟁 그리고 한반도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미 유일 패권의 몰락: 러우 전쟁으로 시작, 이란 전쟁으로 가속화

: 단극 → 다극

: 자유주의 국제질서 → 강대국 정치, 세력권 정치

: 규칙 기반 질서 → 힘에 기반한 위계

: 규칙이 힘이 되는 세계 → 힘이 규칙이 되는 시대

cf) G7 vs C5

* (위기의 증상이자 징후로서) D. Tru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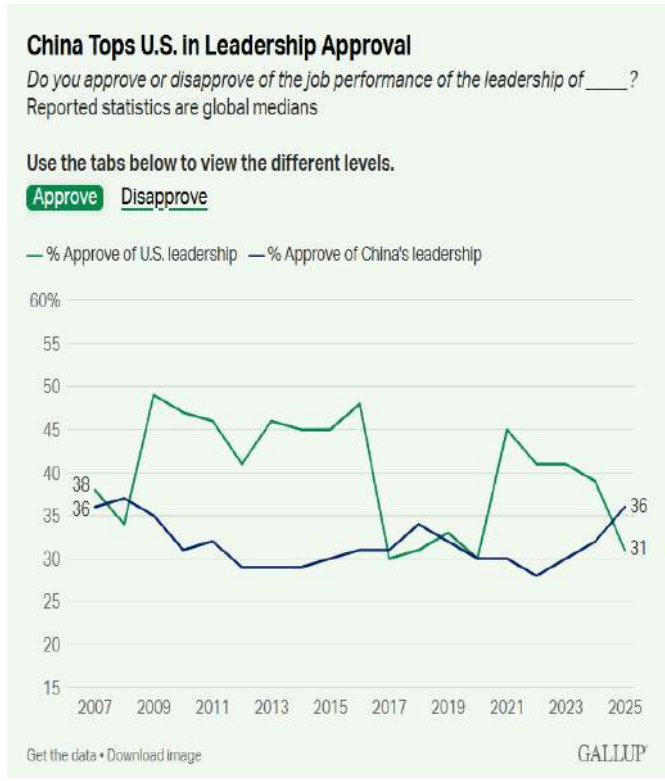
→ 경제자본: 국방비 < 부채 (이자) (N. Ferguson)

달러 패권의 위기

→ 군사자본: 약화된 제조업 기반

→ 신뢰자본: 소프트파워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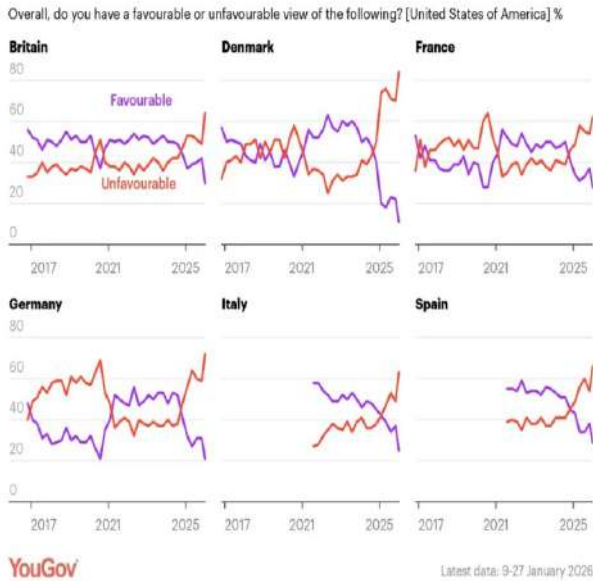
* 130개국 대상
 (2026.04.03)



3

Opinion towards the USA is the most negative it has been in Western Europe since YouGov started tracking in 2016

* 유럽 (2026.01.27)



[Western Europeans' trust in the United States hits a record low - EU Perspectives](#)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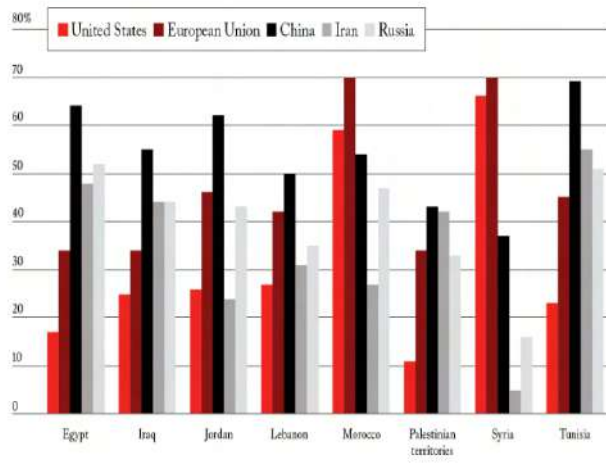
* 중동 (2026.04.07.)

FOREIGN AFFAIRS

America Has Lost the Arab World

POPULARITY CON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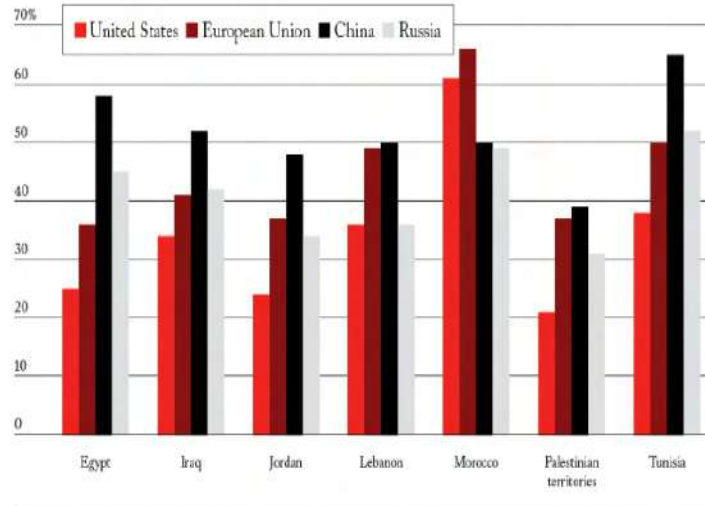
Which countries do you have a favorable opinion of?



Source: Arab Barometer polling question and data, 202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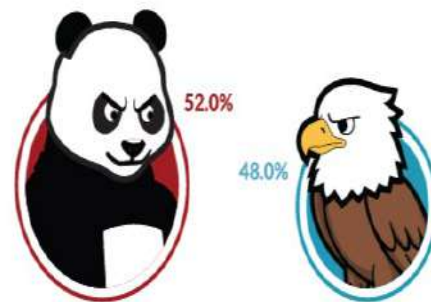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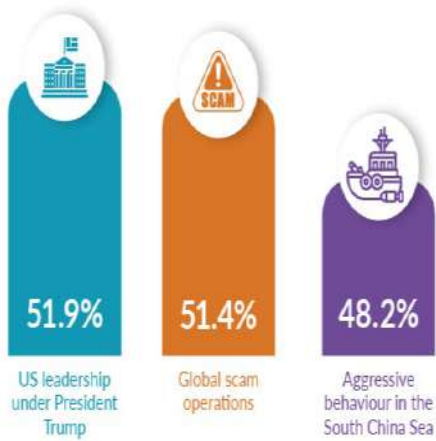
Which countries are committed to upholding international law?



Source: Arab Barometer polling question and data, 202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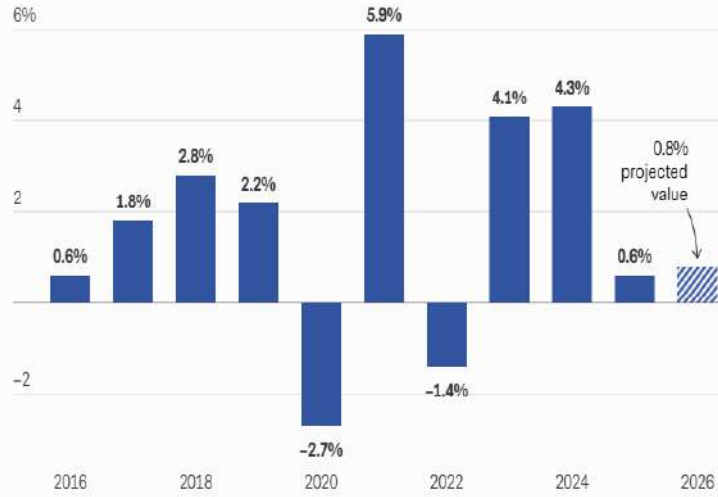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6 Survey (7 April 2026,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8

* 연동된 전쟁

Figure 5: Russian Real GDP Growth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anuary 2026),

[Russia's Grinding War in Ukraine](#)

Putin making \$760m a day from oil as war in Iran delivers windfall

Kremlin sales to double this month as Russia profits from price surge and sanctions waivers

Melissa Lawford
US Economics Correspondent

Melissa Lawford is The Telegraph's US economics correspondent. See more

Published 25 March 2026 9:13pm GMT

Related Topics
Vladimir Putin, Russia, Iran War, Oil prices, Oil

46

Gift this article free

Add as a preferred source

Share icons



[Vladimir Putin making \\$760m a day from oil as war in Iran delivers windfall](#)



- Optimistic scenario (6 weeks) = 84 bil.\$
- Central scenario (end of May) = 161 bil.\$
- Pessimistic scenario (6 months) = 252 bil.\$

[Iran war helps Russia; long conflict would fundamentally undermine economic pressure campaign; sanctions easing does not resolve energy market challenges — KSE Institute - Kyiv School of Economics](#)

11

* 미중 패권 경쟁: 구조와 성격의 질적 변화
→ 한국 외교, 과거와 다른 인식과 문법을 요구

* 러시아 관리의 필요성
1. 원유 수급 다변화 & 북극항로
2. 북러 군사협력 고도화 저지
:K-방산의 DNA - 러시아가 제공 (불곰사업)
NK-방산의 DNA도?...

* ESPO (Eastern Siberia-Pacific Ocean) Oil Pipeline



13



14



• **Yelabuga drone fac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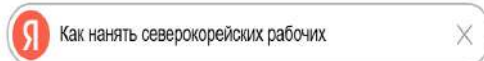
- : Geran-1 and Geran-2 (from Iran)
- : 116 buildings including 67 housing units for 20,000 workers)
- ➔ 5,500 units per month.

• **China: Deng Xiaoping Logistics Terminal**

located just 7 kms east of the Yelabu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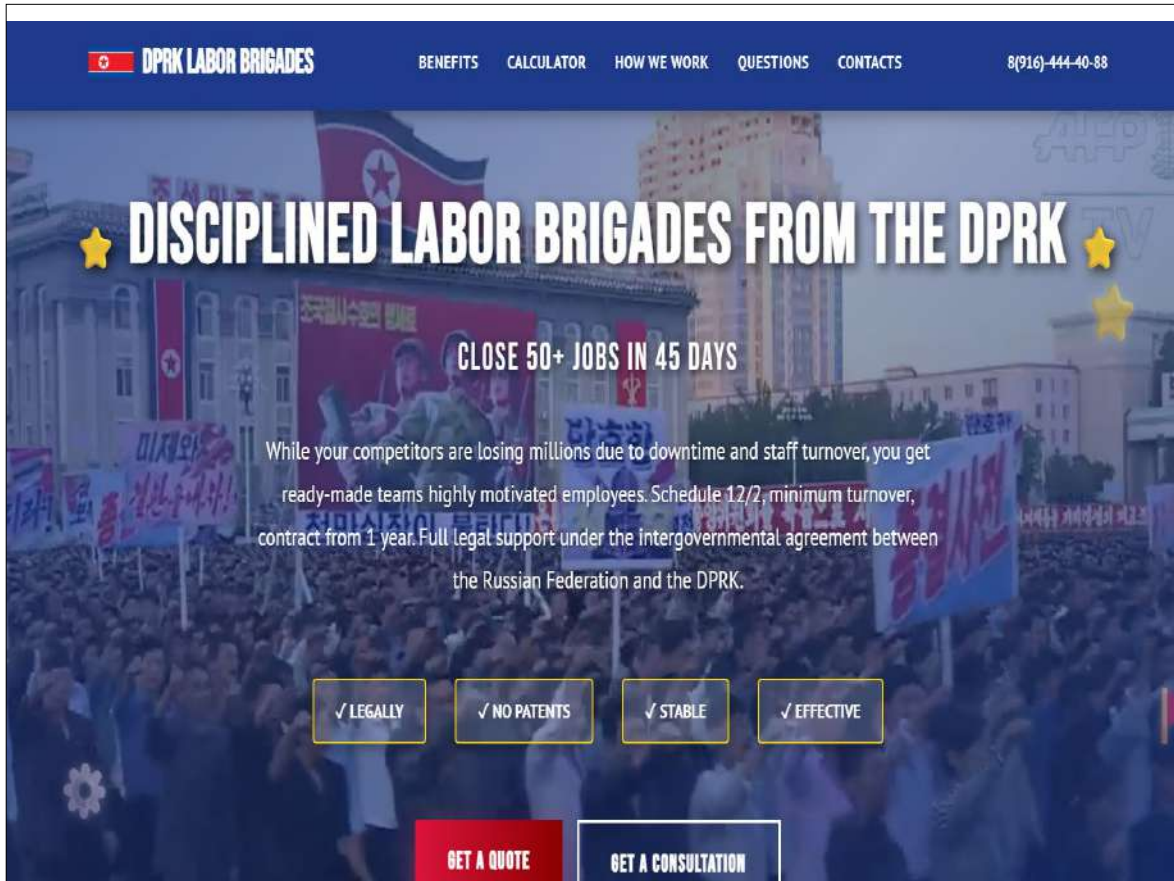
- **North Korea:** reported recruits of up to 12,000 workers and engineers.

[A Closer Look at the Yelabuga UAV Factory - Beyond Parallel](#)



search [ai](#) [ai](#) [pictures](#) [video](#) [maps](#) [finance](#) [apartments](#) [translator](#)

- Hiring workers from the DPRK in Russia: documents, cost...**
[action-market.ru](#) > [blog/kadry-i-hr/najm-robotnikov-...](#)
 How to hire workers from the DPRK. Contacting agencies. The main intermediary in hiring North Korean workers is the Interstate Migration Center LLC (IMC). The company requires orders of at least ...
- How to Hire North Korean Workers in Russia in 2026...**
[business.ru](#) > [article/5541-kak-nanyat-v-rossii-...](#)
 Step-by-step instructions on how to hire workers from North Korea in Russia in 2026. Legal requirements, documents, fines and tips for registration.
- Hiring citizens from North Korea in 2026...**
[glavbukh.ru](#) > [art/393335-kak-nanyat-sotrudnikov-iz-...](#) April 9
 How to Hire North Korean Employees in Russia in 2026: Complete Instructions ...
 Statuses of employees from North Korea: three options. How to get a job for a North Korean worker: step-by-step instructions.
- Recruitment of workers (personnel) from North Korea, North Korea...**
[mmc-rspp.ru](#) > [m/staff/sca/n/line/work-in-Russia-for-...](#)
 Workers from North Korea are most in demand in the construction sector, agriculture and many other sectors of the Russian economy.
- Hiring North Korean Workers: Realities and Risks**
[s-pro.group](#) > [tpost/j8ry68ctv1-naim-severokoreiskih-...](#)
 Migrants from North Korea in Russia. The years 2024-2025 were a period of rapid growth in the number of North Korean workers in Russia. ... How North Koreans are



DPRK LABOR BRIGADES BENEFITS CALCULATOR HOW WE WORK QUESTIONS CONTACTS 8(916)-444-40-88

★ DISCIPLINED LABOR BRIGADES FROM THE DPRK ★

CLOSE 50+ JOBS IN 45 DAYS

While your competitors are losing millions due to downtime and staff turnover, you get ready-made teams highly motivated employees. Schedule 12/2, minimum turnover, contract from 1 year. Full legal support under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DPRK.

- ✓ LEGALLY
- ✓ NO PATENTS
- ✓ STABLE
- ✓ EFFECTIVE

GET A QUOTE **GET A CONSULTATION**

★ THERE IS A SOLUTION: LABOR BRIGADES FROM THE DPRK ★

Imagine: a ready-made team of 50-100 people comes to you. They are not late, do not skip, do not drink, do not conflict. They work 12 hours a day, 28 days a month. They learn new things in 2-3 days. They do not go to competitors. The contract is for at least a year.

This is not a fantasy. These are students from the DPRK on training and practical training within the framework of an official intergovernmental agreement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제1세션> 지정학적 격변의 시대, 평화의 향방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의 향방과 중동 평화의 미래

발표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토론 황의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발표 요약

2026년 2월 28일 미국의 '거대한 분노 작전'과 이스라엘의 '포효하는 사자 작전'이 동시에 실행되며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됐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암살되고 핵·미사일 인프라가 대거 파괴되었음에도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즉각 붕괴하지 않았다. 이는 이란 이슬람공화국 체제의 내구성이 성직자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닌, 군사·경제·정보 복합체로 성장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임이 증명되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로의 권력 이전은 호메이니가 설계한 벨라야테 파키-이슬람 법학자 통치론-가 사실상 군사 권위주의로 전환됐음을 공식화했다.

이 발표는 이번 전쟁의 향방을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첫째, IRGC 내부의 구조적 균열-강경 이데올로그와 실용파 테크노크라트 간의 긴장-이 전후 이란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임을 논한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선택적 통제와 한계적 협상 카드를 통해 이란이 '명예로운 종전'의 틀을 구성하려 한다는 점을 살핀다.

셋째, 이란 국내 여론이 단일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많은 이란 시민들은 전쟁의 종결보다 불완전한 종전-체제가 온존한 채 끝나는 결말-을 더 두려워한다. 이 목소리는 중동 평화 구상의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변수다.

결론적으로 이 전쟁은 미국의 출구 전략 부재, 이스라엘의 지역 패권 재편 야망, 걸프 수니파 국가들의 이중적 불안이 교차하는 구조적 교착 상태에 있다. 그러나 바로 이 교착 속에서 극적인 반전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파키스탄을 중재지로 한 미-이란 정상회담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만의 첫 직접 대화로서 중동 평화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협정의 경로는 멀어졌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지역 질서 재편-이란을 배제가 아닌 협상의 당사자로 포함시키는-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란의 미래를 묻는 질문은 "언제 무너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재편되는가"여야 한다.

키워드: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 이슬람혁명수비대, 중동 평화, 호르무즈 해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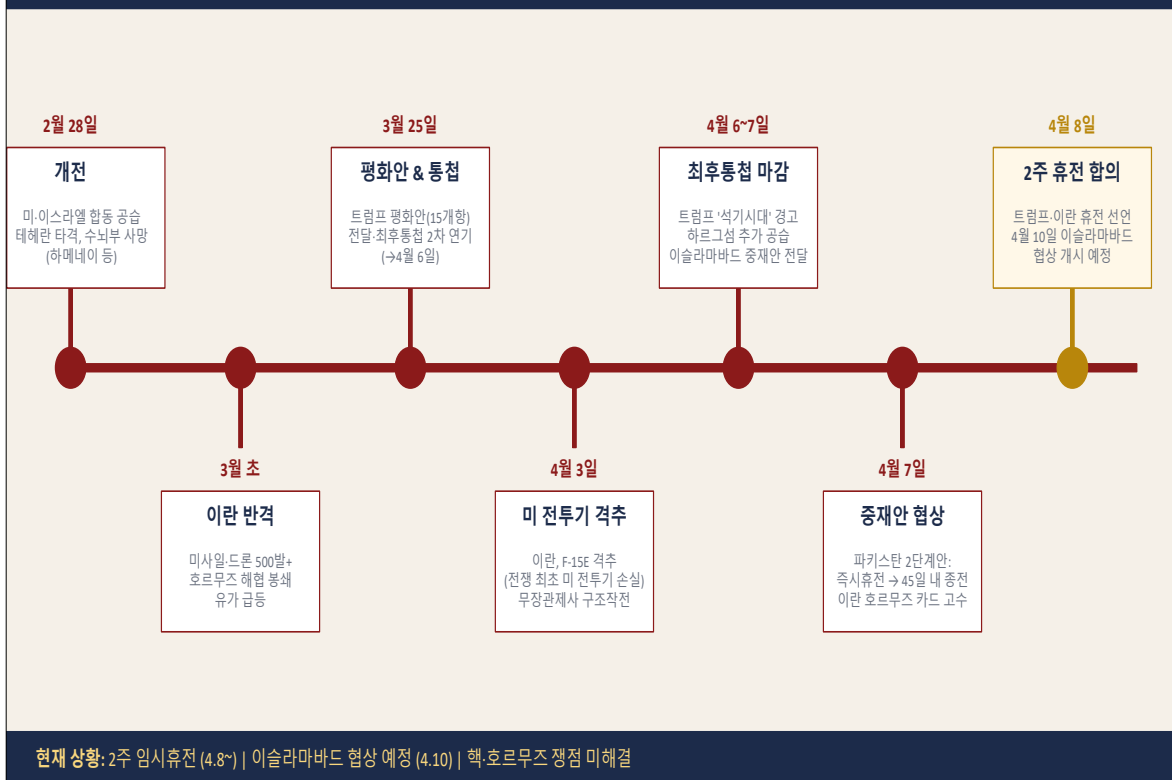
분쟁 타임라인 — 2023 ~ 2026

미 - 이스라엘 - 이란 전쟁의 전개



이란-미국, 이스라엘 전쟁 타임라인

2026.02.28 - 04.08 |



이스라엘의 전쟁 목적 / 가자-이란 연계 / 이란 핵 위협의 실재성

- 전략적 목표: 이란의 핵 능력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헤즈볼라·하마스·후티로 구성된 "저항의 축"을 해체가 궁극적 목표.
- 가자-이란 연계: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 분쟁을 이란이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는 대리전의 일환으로 규정. 가자 작전은 이란을 근본 위협으로 설정하는 더 큰 전략의 첫 단계.
- 핵 위협의 실재성: 2024년 12월 IAEA는 이란이 무기급에 근접한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민간 목적 없는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확인. 다만 이스라엘 극우 연립정부의 국내 정치적 동기(네타냐후의 부패 재판, 하레디 징병 갈등)와 전략적 목표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핑계와 실재가 공존하는" 복합동기.

이란은 이기지 않아도 된다.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

1) 미국의 근본적 오판?

- 미국은 최고지도자 암살 → 1~2일 내 체제 붕괴를 예상했으나 실현 안 됨
- 이란은 독재자 1인에 의존하는 체제가 아님 — IRGC·사법부·성직자 계층이 3중 구조로 운영
- 베네수엘라식 '외압+내부 불만 = 붕괴' 공식은 이란에 적용 불가
- 미 백악관은 외부 압박과 내부 불안정으로 체제가 신속 붕괴할 것으로 계산했으나, 이란 국가 구조의 근본적 속성을 오해한 것

2) 분산된 이란의 정치 구조

- IRGC는 수십 년간 이념 검증과 제도 공고화를 통해 설계된 조직 — 지휘관 교체에 대비한 분산형 지휘 체계 내장
-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체제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적응·강화·분산되며 중복 체계를 갖춘
- 2025년 12월 전쟁 이후 군 지도부가 이미 피해를 인정하고 예비 시스템으로 교체 완료했다고 공개 선언
- 공습은 이란의 군사·경제 인프라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체제 붕괴나 혁명수비대의 전투 의지 꺾기는 불가능

IRGC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시대 — 권력 역학의 역전



설계 당시 (1979)

- 최고지도자 → IRGC 명령
- IRGC = 혁명 이념 수호대
- 정치 불개입 원칙
- 성직자 통치 보조

현재 (2026)

- IRGC → 최고지도자 후보 압박
- IRGC = 경제·군사·정보 복합체
- 선거·정치 전방위 개입
- 성직자 권위를 도구로 활용



▶ 역설: IRGC는 혁명의 수호자로 탄생했지만, 이제 혁명 체제의 최고 권력자를 사실상 결정하는 '딥스테이트'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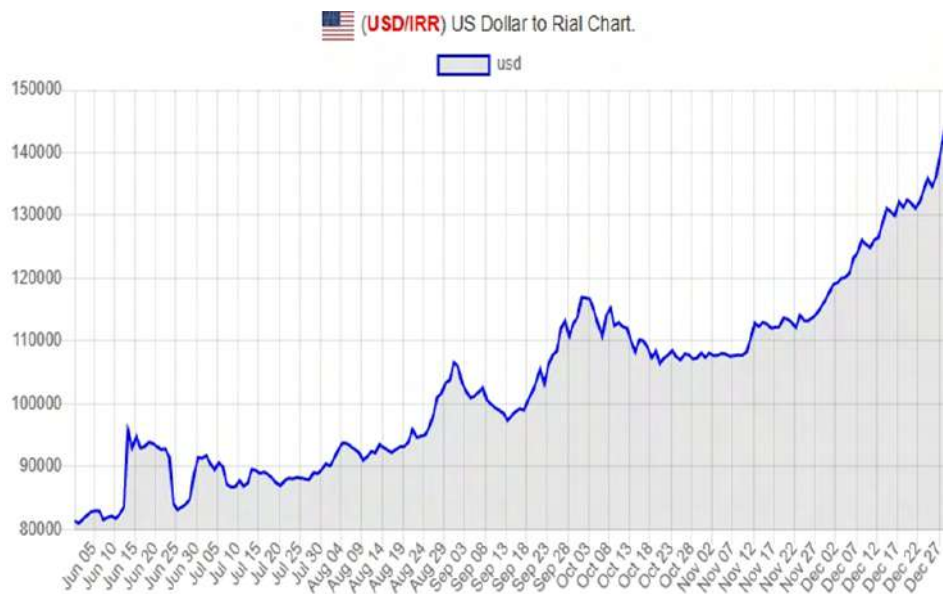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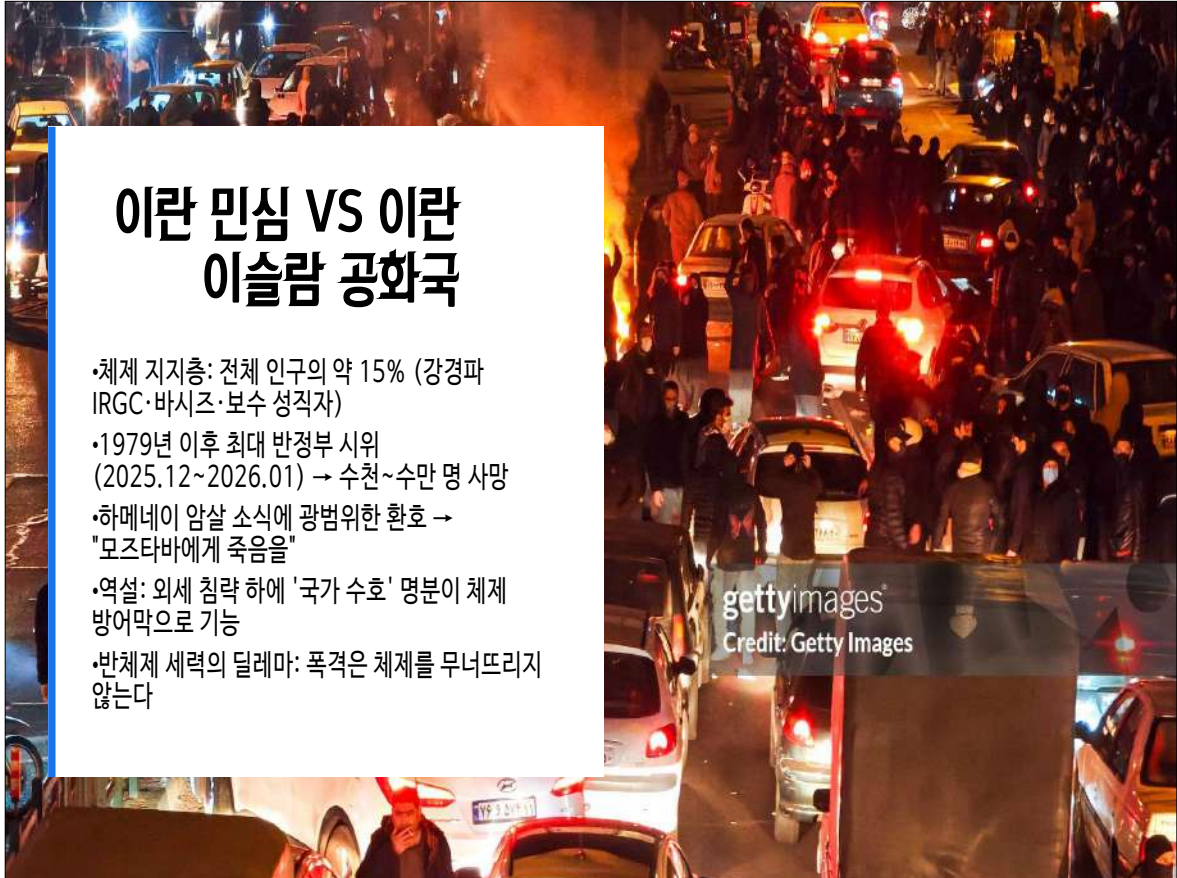
2025.12.28-2026.1.10 이란 시위

2025-2026 이란 시위는 왜 일어났나??



- 시위를 촉발한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요인은 이란 리알(Rial)화의 전례 없는 가치 폭락이다. 리알화는 2025년 한 해 동안 달러 대비 가치의 약 90%를 상실.
- 특히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습 이후 하락세가 가속화되어 2025년 12월 암시장 환율이 달러당 140만 리알을 돌파.
- 더욱 주목할 점은 이란-이스라엘 간 12일간의 전쟁이 진행되던 2025년 6월 당시보다 전쟁 종료 이후 리알화 가치가 더욱 급락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군사적 충돌 자체보다 그로 인한 경제 구조적 취약성과 국제 제재 강화가 통화 가치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공격을 받은 소위 '12일 전쟁'에서 이란 당국이 자국민 보호 역량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정권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친 상태였다.
- 강력한 국제 제재와 전쟁이라는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국내의 정경유착 부패와 고질적인 경제난이 결합되어 오늘날 이란의 경제 파탄을 초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품을 주로 취급하던 전자상가 상인들과 환율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2025년에 이어 2026년 이란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란 민심의 3 분할 구도				GAMAAN 2024~2025 조사 기반 분석
구분	규모	핵심 정체성	전쟁 태도	강점	약점	
이란 국민들이 전쟁을 보는 시각	① 강경 보수 체제 지지	~20 ~25%	IRGC · 바시즈 · 보수 성직자 농촌 빈곤층 · 전쟁 유가족	반대 "외세 침략" 결집 명분	국가 폭력 독점 경제 이권 보유 높은 조직력	정당성 약화 하메네이 암살 후 지지층 동요
	② 팔레비 지지 체제 불리파	~30 ~33%	도시 중산층 · 고학력 청년 재외 교포 / 세속 민족주의	지지 또는 방관 "이 전쟁이 체제를 끝낼 것"	상징적 구심점 국제 네트워크 군 탈영 5만명 연계	국내 조직 빈약 팔레비 지지 ≠ 왕정 지지 소수민족 지역 저조
	③ 자주 개혁 내부 개혁파	~35 ~40%	학생 · 여성 · 노동자 개혁파 성직자 · 시민사회	반대 "외세 폭격 말고 우리 손으로"	광범위한 사회 기반 도덕적 정당성 높음 지속적 헌상 저항	구심점 · 지도자 부재 극심한 탄압 내부 분열



이란 민심 VS 이란 이슬람 공화국

- 체제 지지층: 전체 인구의 약 15% (강경파 IRGC·바시즈·보수 성직자)
- 1979년 이후 최대 반정부 시위 (2025.12~2026.01) → 수천~수만 명 사망
- 하메네이 암살 소식에 광범위한 환호 → "모즈타바에게 죽음을"
- 역설: 외세 침략 하에 '국가 수호' 명분이 체제 방어막으로 기능
- 반체제 세력의 딜레마: 폭격은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gettyimages
Credit: Getty Images

이란 신정 체제의 권력 구조와 승계 정치

- 최고지도자 (벨러야테 파키) → IRGC → 사법부·의회 순서
- 모즈타바 취임 과정: IRGC의 전문가회의 압박 / 온건파 반발 무력화
- "선거가 아닌 왕조: 신정 체제의 군주제화"
- 모즈타바의 약점: 종교적 자격 (마르제에 타끌리드) 미충족 / 공개 경력 전무
- IRGC가 실질 권력: "모즈타바는 혁명수비대에 빛진 최고지도자"



‘순교’하는 자아= 가장 이상적인 시아 무슬림

아야툴라 호메이니의 순교, 순교자에 대한 어록들

- 순교는 영원한 명예이다.
- 순교는 승리의 비밀이다.
- 이슬람의 길에서 순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명예이다.
- 당신이 순교를 각오하면 당신은 승리한 것이고, 죽음과 순교를 두려워한다면 패배한 것이다.
- 순교자들을 위해 우는 것은 그 정신이 살아 있도록 함이다.
- 붉은 죽음(명예로운 죽음)은 '검은 삶(부끄러운 삶)'보다 낫다.



걸프 아랍 국가들의 전략적 딜레마 1

- **대미(對美) 관계: 안보 의존과 자율성 확보 사이**
 - 미군 기지 유치 = 보복 표적의 역설, 장기적 기지 재검토 불가피
 - 미국의 일방적 개전 결정에 대한 사전 협의 배제 - 동맹 불안 심화
- **대이란(對이란) 관계: 배신의 기억과 재관여의 딜레마**
 - GCC '공격 불허' 보장 제공 → 이란의 최대 규모 보복 타격 감행 (이란의 배신 인식)
 - UAE 최대 피해 (이스라엘에 버금), 바레인 미 5함대 기지 125발 미사일 차단
 - 장기적으로는 이란과의 재관여 필요성 불가피 - 봉쇄와 대화 사이의 이중 계산
- **대이스라엘(對以) 관계: 암묵적 이해 공유, 공개 연대 불가**
 - UAE 이스라엘 대사 소환, 아브라함 협정 사실상 동결
 - 이스라엘-걸프 간 비공식 안보 협력 지속되나 공개 연대 제약 - 아랍 여론 부담

걸프 아랍 국가들의 전략적 딜레마 2

• 전후 전망: 독자 방위력 증강과 중동판 '안미경중(安美經中)' 가속

- 중국·러시아와 균형외교 강화, 에너지 인프라 다각화 추진
- 미국 안보우산 전제하되 점진적 자율성 확보 - 안보 패러다임 전환 불가피

SA 사우디아라비아 성대적 경제·중재자 포지셔닝

- 정유소 화재 피해 - 이란 미사일의 부수적 타격, 아랍코 시설 일부 손상
- 명시적 개입 자제 - 미군 기지 제공했으나 전쟁 지지 공식 선언 회피
- 중재자 역할 모색 - 이란과의 2023년 국교정상화 자산 활용 가능성

피해: 중간 외교 자산 보유

QA 카타르 LNG 타격·중재 역할 소진

- LNG 수출 타격 - 호르무즈 봉쇄로 세계 최대 LNG 수출국 타격
- 중재 외교 자산 소모 - 가자 협상 이후 추가 역할 수행 여력 약화
- 미 알우데이드 기지 보유 - 미국과의 관계 속 중립 유지 딜레마

경제 타격: 심각 외교력 소진

OM 오만 유일 미적 미회피·대외 채널

- 유일하게 직접 피격 면함 - GCC 6개국 중 이란 보복 미 타격
- 출구 협상 통로 유지 - 전통적 미-이란 간 비밀 채널 역할 지속
- 이슬라마바드 협상 병행 - 파키스탄과 함께 중전 중재 역할 분담

피해: 최소 채널 보유

BH 바레인 미 5함대 기지 폭격·최전선 노출

- 미 5함대 기지 피격 - 125발 미사일 차단, 일부 시설 손상 확인
- 최전선 노출 - 기지 유지가 보복 표적이 된 역설적 상황
- 시아파 내부 갈등 - 전체 인구 60%+ 시아파, 이란의 심리전 타깃

피해: 최대급 안보 취약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와 전략적 계산

- 안보 목표: 이란 핵·미사일 위협의 구조적 제거
 - 이란 핵 인프라 무력화 - 1996년 이후 30년 프로젝트의 완결 시도
 - 헤즈볼라·하마스·후티로 구성된 '저항의 축' 전면 해체
- 복합 동기: 전략적 목표와 국내 정치의 교차
 - 네타냐후 연립정부의 정치적 생존 (부패 재판·하레디 징병 갈등)
 - 전시내각 체제 유지를 통한 정권 안정성 확보 수단으로 전쟁 활용

- 대미 연대 전략: 공동전쟁의 제도화
 - 미국을 전선에 끌어들이어 이스라엘 최적 시나리오 실현
 - 'Greater Israel' 서사 확산 - 허커비 대사 발언 활용
- 대이란 내부 분열 전략
 - 쐐기전략(Wedge Strategy): 쿠르드·아제리·루르·발로치 소수민족 봉기 유도
 - 이란의 '시리아화' 추구 - 중앙집권 붕괴를 통한 지역 패권 공백 창출

결론: 연결된 위기, 중동의 평화는 올 수 있는가?

- 이란은 무너지지 않는다 - 질문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재편되는가'
 - IRGC 주도 체제 유지가 가장 유력하나, 내부 실용파 부상 여부가 핵심 변수
- 이란 민심은 전쟁 종결보다 '불완전한 종전'을 더 두려워한다
 - 체제가 온존한 채 끝나는 결말 - 반체제 세력의 딜레마이자 평화 설계의 맹점
- 중동 평화는 이란을 배제한 설계로는 불가능하다
 - 이란을 봉쇄 대상이 아닌 협상 당사자로 포함하는 새로운 지역 질서 구도 필요
- 전쟁과 복합위기는 평화·민주화·인권 의제를 유예시킨다
 - 한국은 에너지 안보·방산 협력·인도적 기여의 균형 속에서 독자적 중동 전략을 모색해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제1세션> 지정학적 격변의 시대, 평화의 향방

트럼프 2기 정부 하 한반도 문제의 곤경

발표 차태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토론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국문 초록

트럼프 2기 한반도 문제의 곤경: 강대국 경쟁 시대 대한민국의 전략적 재편

차 태 서
서울대학교

본 발표문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지정학적 스윙 스테이트로서 한국의 대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진보 성향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경우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헤징 전략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사실상의 균형(balancing)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둔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 외교의 구조적 조건으로서 ‘안미경중’이라는 이중 의존 구조를 지적하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 헤징이 불확실성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 전략으로 자리잡아 왔음을 보인다. 동시에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진보·보수 간 이념적 경쟁이 헤징의 구체적 형태를 ‘경(輕)·중(重) 헤징’ 사이에서 변동시키는 이른바 ‘내부 스윙(swinging inside)’ 패턴을 형성해 왔음을 분석한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미중 경쟁의 구조적 압력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은 크게 축소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에 대한 균형 전략이 새로운 대전략적 합의로 부상하였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적 차원에서는 절제된 태도를 보이지만, 대일 관계 개선, 한미동맹 강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 등 주요 정책에서 사실상 균형 전략에 근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발표문은 첫째, 미중 경쟁 격화에 따른 동맹 방기 공포와 미국의 압력 증대라는 구조적 요인, 둘째, 진보 진영 내부의 세대·이념적 변화와 실용주의적 정책 성향의 부상, 셋째, 반중 정서 확산과 반일 감정 약화 등 여론 변화라는 국내 요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사례는 다극화 속에서 헤징을 통해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일반적 스윙 스테이트 패턴과 달리, 오히려 구조적 압력으로 인해 전략적 선택의 폭이 축소되는 예외적 경로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균형 전략으로의 수렴은 아직 불안정하다. 국내 정치 내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 그리고 미국의 ‘약탈적 패권’에 대한 반발 가능성은 향후 전략적 재스윙의 여지를 남긴다. 따라서 한국의 대전략은 구조적 압력과 국내 변동성이 교차하는 조건 속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미완의 스윙’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트럼프 2 기 한반도 문제의 곤경

강대국 경쟁 시대 대한민국의 전략적 재편

차태서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발표 개요

핵심 퍼즐

진보 성향의 이재명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복원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한민국은 사실상 중국 견제(**balancing**) 방향으로 이동했다. 왜인가?

분석 틀

Neoclassical realism을 프레임을 활용하여, 미중 경쟁 심화가 해징 공간을 축소시키고 균형 전략이 초당적 합의로 부상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핵심 주장

한국의 해징 전략은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으며, 이 변화는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 그러나 국내 파벌 갈등과 미국의 「약탈적 패권」에 대한 반발이 재역전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론적 배경: 강대국 경쟁 시대의 헤징

현실주의는 전통적으로 중견국에게 **balancing**과 **bandwagoning**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3의 선택지인 **헤징**-불확실성 속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보편추구 행동-이 광범위하게 관찰된다(Kuik 2021).

헤징의 한계

강대국 경쟁이 격화될수록 헤징 공간은 축소된다. 결국 중견국은 균형 또는 편승을 선택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에 직면한다(Korolev 2019)

단층선 국가의 딜레마

경쟁하는 세력권의 단층선에 위치한 국가일수록 이 압력은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우크라이나 사례가 보여주듯, 잘못된 선택은 국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신고전적 현실주의

구조적 변수만으로는 헤징의 다양한 스펙트럼(경헤징~중헤징)을 설명할 수 없다. 국내 요인-특히 지배 엘리트의 역할 인식-이 구체적 형태를 결정한다(Marston 2024).



한국의 이중 의존 구조

us 안보: 미국

한미 동맹과 핵우산에 대한 결정적 의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안전망.

cn 경제: 중국

2004년 이후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 20년 이상 경제 성장의 불가결한 시장.

☯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중 의존 구조가 헤징을 합리적 선택으로 만들었다.

이 구조적 조건 하에서 보수·진보를 막론한 역대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헤징 전략을 채택해왔다.



정치 양극화 시대의 한국식 진자 운동

헤징이 대전략적 합의라면, 그 구체적 형태는 집권 엘리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진자처럼 흔들렸다. 이것이 바로 「내부 스윙」(swinging inside)이다.

진보 정부: 경헤징(Light Hedging)

- 자율성·민족주의 규범 강조
- 중국·북한과의 관여에 적극적
- 미국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 경계
- 워싱턴으로부터 독립성 강화 추구

보수 정부: 중헤징(Heavy Hedging)

- 외부 위협 앞에서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 한미 동맹을 외교 최우선 순위로 설정
- 미국과 공조하여 대북 억제·제재 추구
-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

이 역할 경쟁은 한국전쟁에 대한 상이한 역사 해석-미국의 동맹국(보수) 대 주체적 균형자(진보)-에서 비롯된다(Ryu 2023).

역대 정부의 헤징 궤적

노무현 정부 (2003 - 2008)

「동북아 균형자론」과 「자주국방」 표방. 이라크 파병·KORUS FTA와 전략적 유연성 협상 거부를 병행한 **경헤징**.

1

박근혜 정부 (2013-2017)

초기 경헤징(천안문 열병식 참석)에서 북한 4차 핵실험 후 THAAD 배치 결정으로 완전 반전. 한 정부 내 스윙의 전형.

3

이명박 정부 (2008-2013)

한미 동맹을 「린치핀」으로 격상.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대응 이후 한중 관계 악화. **중헤징**으로 재조정.

2

문재인 정부 (2017-2022)

「3불 정책」으로 중국 달래기. FOIP·쿼드 불참. 그러나 임기 후반 대만해협 안정 중요성 명시 등 중헤징으로 점진적 이동.

4



THAAD: 헤징의 딜레마를 드러낸 결정적 사건

박근혜 정부의 THAAD 배치 결정과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한국 엘리트들에게 결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했다.

헤징의 핵심 전제였던 「안보와 경제의 분리」가 강대국 패권 경쟁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 사건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으며, 이후 한국 대전략 논의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었다(Pardo 2023).

패러다임 전환

윤석열 정부: 헤징에서 균형으로

역사적 단절의 인식

윤 정부는 현 시대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의 진영 대결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세계관을 전면 수용했다.

전략적 명확성의 선언

- 「글로벌 중추국가」: 미국과 연대하여 중국 견제
- 캠프 데이비드 원칙: 미일한 대중 견제 연합의 정점
- 한국을 「인도태평양 국가」로 재정의
- 중국을 명시적 위협으로 설정

그러나 이 단순한 마니교적 세계관은 국내 정치에 적용되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정치적 자살로 귀결되었다(Cha 2026).



이재명 정부: 예상된 헤징 vs. 사실상의 균형

많은 관측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Anything But Yoon」 노선을 취하며 경헤징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 자신도 취임 직후 TIME지 인터뷰에서 한국이 동서 진영의 「Bridge」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양측에 동시에 끌려다니면 고래 싸움에 낀 새우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양측을 중재·조율하고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이재명 대통령

그러나 실제 외교 궤적은 이러한 수사와 크게 달랐다. 이 정부의 행보는 기껏해야 중헤징, 실질적으로는 균형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의 대일·대미 정책: 전략적 명확성의 지속

JP 대일 정책: 역사보다 협력

2025년 8월,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 선택. 이시바 총리와 17년 만의 공동 기자회견 개최. 3·1절 기념사에서도 반일 민족주의 대신 실용적 협력 강조. 캠프 데이비드 체제의 제도적 유산 계승.

us 대미 정책: 안미경중의 종언 선언

2025년 8월 CSIS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선언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GDP 대비 3.5% 국방비 증액 약속. 미국으로부터 「모범 동맹」 평가 수령(Colby 2026).

🇺🇸 핵추진 잠수함: 전략적 명확성의 상징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기존 디젤 잠수함은 중국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하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요청, 승인 획득. 미 해군총장은 「중국 억제에 활용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평가(Kwon 2025).

왜 이재명 정부는 균형 전략을 택했는가?



구조적 압력: 동맹 포기 공포
미국 NSS 2025는 한국에 제1도련선 억제력 강화를 요구. 헤그세스 국방 장관은 경제·안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들에 명시적으로 경고. U.SFK 사령관 브린슨은 한국을 「고정 항공모함」으로 규정.



국내 엘리트 변수: 5 8 6 세대의 퇴조
이재명 정부는 반미·반일 성향의 586 세대가 아닌 실용주의적 테크노크라트가 주도.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과거 친동맹파의 핵심 인물. 쿠데타 실패 이후 보수 붕괴로 반일·반미 동원 정치의 필요성 감소.



여론 변화: MZ세대의 반중 정서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코로나 봉쇄, THAAD 경제 보복이 젊은 세대의 반중 정서를 강화. 반일 감정은 한일 문화 교류 확대와 국력 자신감 상승으로 약화. 진보 지지층 내에서도 친중·반일 노선 유지가 어려워짐.

한국 사례의 특이성: 다른 스윙 국가들과의 비교

1) 비전선 중견국들 (예: 걸프 국가들, 캐나다)

**대외 역량 확대
다극주의 활용
이익 추출
더 큰 자율성**

2) 인도-태평양 전선 국가들 (한국, 일본)

**자율성 축소
대중국 견제 결집
구조적 압박
헤징 공간 축소**

다극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스윙 국가들이 자율성을 확대하는 반면, 한국은 인도태평양 대중 봉쇄 구조의 최전선에 위치함으로써 오히려 자율성이 수축하고 있다.



불안정성의 두 원천

① 자주파의 잠재적 반격

노무현 시대부터 이어진 진보 내 「자주파」 대 「동맹파」의 이념 갈등이 잠복해 있다. 특히 대북 정책을 둘러싼 자주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들은 핵추진 잠수함을 전략적 명확성이 아닌 자주 외교를 위한 핵 잠재력 확보로 해석한다(Lee, Y. 2025).

② 미국의 「약탈적 패권」에 대한 반발

트럼프 2기의 관세·안보 위협 결합 거래 외교는 동맹국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Walt(2026)는 이를 「약탈적 패권」으로 개념화한다. 반복적인 압박은 단기 순응을 이끌어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성 추구와 대안 파트너 모색을 촉진한다. 이란 침공 후 호르무즈 해협 안보 협력 요청에 대한 한국의 미온적 반응은 중요한 신호다(Norriöf 2026).

결론: 대한민국의 미완의 스윙

1 패러다임 전환의 확인

2020년대 한국의 대전략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급속히 이동했으며, 그 위치는 일본과 점점 수렴하고 있다. 이는 정권 교체를 넘어선 새로운 외교 합의의 형성을 시사한다.

2 합의의 취약성

그러나 이 수렴은 불안정하다. 국내 파벌 갈등과 미국의 약탈적 패권에 대한 반발이 상호 강화될 경우, 대전략적 합의는 다시 반전될 수 있다. 극단적 시나리오에서는 자주 핵무장 옵션의 정상화도 배제할 수 없다(Das and Epstein 2025).

3 이론적 함의

한국 사례는 인도태평양 전선 국가와 비전선 국가 간의 분기하는 궤적을 예고한다. 미중 경쟁이 심화될수록 중견국의 행동 패턴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더욱 뚜렷하게 갈릴 것이다.



FIGURES TO KNOW ABOUT THE U.S.-SOUTH KOREA RELATIONSHIP

South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S.	\$28 billion	\$38 billion
U.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 Korea		

Source: U.S. Department of Defense; South Korea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제2세션>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 성찰과 전망

통일·평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구축의 성과와 과제

발표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일평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의 성과와 과제

2026. 4. 16. 이효원(법학전문대학원)

1. 서론

통일·평화구축사업은 통일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역량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적 과제인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헌법·통일법센터는 2015년부터 10년간 계속하여 통일·평화구축사업에 참여하여 통일평화연구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헌법·통일법센터는 2010년 헌법과 통일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통일평화연구원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남북한의 관계는 국제정세, 북한의 내부적 사정, 남한의 정치적 지형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었으며, 남북한은 오랫동안 이념적 대립으로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남한과 북한은 각자 헌법에 평화와 통일을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적 구제절차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미봉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하지만,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북관계를 규범적 틀에서 관리하는 환경이 형성되었다. 특히, 남한은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 영역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0년 들어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북한은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모델은 북한 지역이지만, 남한의 주민에 의해 사업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남북한의 당국과 주민이 공존하면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요구되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하는 부분법인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그 하위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법체계와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적용되는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남북한이 협력하여 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남북한은 법제도의 통합에 대한 모델을 통해 실험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남북한은 교류협력사업을 중단하였고, 현재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은 2018년 판문점선언 등을 통해 관계개선을 시도하였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은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의 통합과 사법절차를 통한 분쟁의 해결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와 사업은 총론적이고 추상적인 선언의 수준을 넘어 각론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평화를 헌법적 가치로 수용하고, 한반도의 분단은 그 자체가 평화와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헌법은 통일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전제로 하므로 통일은 평화와 서로 분리될 수 상호 개념적 요소가 되고 있다. 헌법·통일법센터는 통일평화연구원이 추진하는 통일·평화구축사업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사업지원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법제도를 깊이 연구하고, 평화학과 통일학의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헌법·통일법센터는 통일평화연구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성과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영감과 지원을 받았다. 2006년 통일평화연구원이 설립되고 그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기회를 맞아 통일평화를 위한 법제도의 기반을 구축한 성과와 과제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2.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참여 현황

가. 2015년 이후 계속 참여

헌법·통일법센터는 통일평화연구원이 처음 통일기반구축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10년간 계속하여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통일법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자료집의 발간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받았다. 헌법·통일법센터는 2010년 법학연구소 산하의 센터로 설립(센터장 성낙인 교수)되었으며, 그 사업에는 헌법과 통일법을 전공한 교수와 연구자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등 실무에 종사하는 법률가들과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매년 10여명씩 참여하여 이론적 연구와 실무적 경험을 종합하고 있다.

헌법·통일법센터는 통일평화연구원으로부터 매년 1년 사업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고, 2020년부터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를 통해 학제간 교류와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여 통일법에 대한 저서, 논문 등을 다수 발표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통일법을 전공한 박사 총 5명과 석사 10여명을 배출하였다.

나. 연구주제

헌법·통일법센터는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중단된 이후에도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규율하여 온 남한의 법률, 북한의 법률, 남북한의 합의서에 대해 규범적 연구를 계속하였

다. 현재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남한의 법률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인권법 등 20여개 법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헌법을 비롯한 부분법, 경제개발구법, 나진·선봉 자유 경제 무역 지대 지정에 관한 법률 등 개방법제를 연구하였다. 특히, 동서독, 예멘, 키프로스, 중국·대만의 관계, 홍콩과 마카오, 예멘의 통일 등 외국의 사례도 연구하여 남북한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유의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구분하여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를 시작으로, 다양한 통일의 유형을 상정하여 그에 적합한 유형별 통일과정에 필요한 법률을 준비하고,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통일헌법, 법률의 통합, 국가조직의 통합 등에 대해 필요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헌법·통일법센터는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즉,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법의 체계적 이해(2023),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관련 법적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절차(2024), 남북한의 헌법을 통해 본 남한과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규범적 연구(2025), 남북한 법률체계의 재정비와 규범력 확보 방안 모색(2026) 등을 주제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헌법·통일법센터는 그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체계, 북한법률(경제개발구 등 개혁개방법제), 남북한 분쟁해결 방안(관련 판례의 분석),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제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원법제, 북한인권 법령, 외국 사례(동서독 통일, 남북 예멘 통일, 중국-대만 양안관계, 키프로스, 체제전환국가 등)에 대한 연구성과를 자료집으로 축적하였다.

3. 법제도 기반구축의 성과

가. 통일법 강의를 통한 교육

헌법·통일법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정규 교과과정으로 ‘통일법’을 전공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여 매년 1학기에 강의하고 있으며(수강생은 약 10명 내외), 일반대학원(석사, 박사과정)에서도 ‘통일법’, ‘북한법’ 등을 전공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통일법강좌’를 개설하였는데, 이는 정교 교과과정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부학생에 대해 법학과 강의를 없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통일법강좌’는 2010년부터 시작하였는데, 매학기(1학기는 3~6월, 2학기는 9~12월) 총 10회(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진행하고 있다.

‘통일법강좌’는 통일법에 대한 모든 분야를 강의별로 구분하여 매 학기마다 10개의 주제를 정하여 강의하며, 통일법을 전공한 교수, 박사급 연구원, 판사,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연구원 등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대학원 학생, 서울대학교 학생이 아닌 외부의 대학생들에게도 수강을 허용하고 있으며,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정원으로 설정한 50명을 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아져 10명 내외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2026년 4월 현재까지 제22기가 수료하였으며, ‘통일법강좌’는 통일법에 대한 강의와 재교육을 통해 통일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하면서 통일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 학술대회·세미나 등

헌법·통일법센터는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으로 각종 학술대회, 세미나, 간담회, 공개강좌 등을 추진하였다. 헌법·통일법센터는 2015년부터 매년 1회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쟁점과 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학술대회는 통일부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통일부가 현안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헌법·통일법센터는 2023년부터는 매년 통일과북한법학회, 통일법정책연구회 등 다른 학회와 공동으로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연변대학과도 ‘평화통일을 위한 법제도’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두만강 포럼’에 참석하여 북한의 학자들과 교류하기도 하였다.

헌법·통일법센터는 2010년부터 매월 1회(마지막 주 토요일) 헌법과 통일법을 주제로 월례세미나를 개최하는데, 1년 8회를 개최하는 세미나에는 약 20명이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며, 2026년 3월까지 제103회 개최하였다. 매년 1회 여름방학에는 하계 워크숍을 개최하여 헌법과 통일법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20여명이 참석하여 외부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통일아카데미, 통일교육원, 통일법정책연구회 등 국가기관이나 통일법연구단체에서 개최하는 공개강좌에 참여하여 북한법의 체계, 남북합의서의 효력, 통일법의 헌법적 좌표 등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다. 저서·논문·자료집 등 발간

헌법·통일법센터는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통일헌법의 이해(2016), 통일법의 이해(2018), 평화와 법(2018),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2020) 등 9권의 책을 발간하였다. 이외에도 책임연구원과 참여연구원 등이 북한의 입법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체계(2021), 통일과정에서의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2022), 통일을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2023),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2024), 중국 일국양제의 한반도 통일과 도기 법제에 대한 시사점(2025) 등 3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헌법·통일법센터는 2012년부터 학술지인 ‘통일과 법률’을 매년 2회 발간하여 신진연구자의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고, 2026년 3월까지 제26호를 발간하였다. 이외에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한 연구성과를 ‘북한법의 체계적 이해’, ‘통일법의 체계적 이해’, ‘통일법 판례 연구’ 등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라. 기타

헌법·통일법센터는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남북 합의서의 규범력 확보방안,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위한 법률(안) 등 현안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법무부, 통일부, 법제연구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통일법제 연구성과 분석평가와 활용방안’, ‘남북한 의료법제 통합방안’, ‘남북접경지역 발전방안’, ‘북한법령용어사전 발간’ 등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였다.

4. 향후 과제

가. 통일법제 연구 확산

통일법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법무부 등 국가기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였으며, 대학이나 민간단체에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북한과 관련된 자료의 접근과 수집이 어려워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들어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북한법제, 노동신문, 민주조선 등 다양한 자료의 수집이 상대적으로 가능해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에 수반되는 법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어 통일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이 중단되면서 북한법에 관한 자료의 수집이 어렵게 되고, 남북관계에 대한 현안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통일법에 대한 관심도 약화되고 있다. 최근까지 남북관계의 경색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립으로 인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어, 남북관계의 법적 현안이 발생하지 않고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해 남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법원도 이에 적극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남북관계를 법치의 틀에서 규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법에 대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문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기존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반영하여 그 적합성을 점검하고 조정할 것도 요구된다. 특히, 통일법의 영역을 남북통일에 국한하지 말고, 한반도와 국제평화의 관점으로 지평을 넓혀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학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연구주제를 다변화하여 남북한 법제도의 통합, 법률과 사법제도의 통합,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기능 강화

통일평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그 역사적 시대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더라도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제도의 통합을 위한 연구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후손에서 통일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통일법을 연구해야 하고, 그 연구성과는 체계적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다. 통일을 정태적 결과가 아니라 동태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통일작업은 이미 시작된 것이므로 통일을 대비하는 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확산되고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법제도를 정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북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작업을 업데이트하여 기초자료로 축적해야 한다. 최근 통일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증가로 인하여 법률시장에서 그다지 수요가 있지 않지만,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정을 지닌 법률전문가에 대해서는 학문적 연구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 통일법 전문가를 집단화하고 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신진 연구자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지원을 다원화할 필요도 있다.

다. 학내 연구 네트워크의 체계화

통일평화연구원은 2021년 통일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사업지원을 평화, 인권, 안보 등으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20여개 사업팀이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는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학제 간 연구사업의 교류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 분야의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서로 관련된 연구사업을 연결하여 시너지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평화와 통일은 어느 한 분야에서 총괄하기 어려운 연구이므로 통일평화연구원이 연구지원사업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조정할 것이 요구된다. 다만, 통일평화연구원이 지원하는 연구사업팀의 연구성과를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것이 필요하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제 간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연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각 사업팀에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일방적이고 파편적으로 발표하고 공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향후에는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의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연구사업을 공모하고,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기반구축사업의 내용에 따라 관련 분야의 사업팀이 연합하여 공동연구와 결과발표를 위해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연구성과를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관련 분야의 사업팀이 공동연구를 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차년도 연구사업을 통해 피드백을 강화하는 등 학내 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개발과제

통일평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의 성과와 과제

2026. 4. 16.

이효원 교수



발표순서

01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참여 현황

02 법제도 기반구축의 성과

03 향후 과제



01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참여 현황 (1)

✓ 2015년 이후 매년 참여

- 법학연구소 헌법·통일법센터는 2015년부터 10년간 매년 사업에 참여하여 왔으며, 통일·평화연구원의 지원 下 통일법제 관련 연구를 지속·발전
- 교수,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공무원(통일부·법무부 등), 신진학자 등 매년 10여명이 사업에 참여하여 평화통일에 관한 연구를 진행

※ 사업기간 통일법 전공 박사 총 5명, 석사 총 8명 배출



3

01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참여 현황 (2)

✓ 연구주제

-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법의 체계적 이해(2023),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관련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절차(2024), 남북한의 헌법을 통해 본 남한과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규범적 연구(2025), 남북한 법률체계의 재정비와 규범력 확보방안 모색(2026) 등을 주제로 연구사업 추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체계, 북한법률(경제개발구 등 개혁개방법제), 남북한 분쟁해결방안(관련 판례의 분석),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제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원법제, 북한인권법령, 외국 사례(동서독 통일, 남북 예멘 통일, 중국-대만 양안관계, 키프로스, 체제전환국가 등)

※ 헌법·통일법센터(2010년 설립, 초대 센터장 성낙인 교수, 현재 이효원 교수)를 중심으로

평화학·통일학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



4

02 법제도 기반구축의 성과 (1)

✓ 통일법 교육(강의)

- 로스쿨 전공 선택과목(통일법, 매년 1학기), 일반대학원(통일법, 북한법 등) 수업, '통일법강좌'(2010년부터 연 2회, 10주 과정, 제22기까지 진행)
- 통일법 강의와 재교육을 통해 통일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통일법 논문상 등을 통해 통일법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대



02 법제도 기반구축의 성과 (2)

✓ 학술대회·세미나 등

- 학술대회 :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쟁점과 과제'(통일부 후원으로 2015년부터 매년 1회), 통일법·북한법 공동학술대회(유관 학술단체와 2023년부터 매년 1회), 중국 연변대학 학술대회 참여(공동개최, 두만강 포럼 참석)
- 월례세미나(2010년부터 월 1회 20여명 참석, 연 8회, 총 제102회), 하계워크숍(매년 1회, 20여명 참석), 대학원생·외부전문가 초청 특강 등 진행
- 법무부 통일이카데미, 통일교육원, 통일법정책연구회 등 공개강좌 참여 (북한법의 체계, 남북합의서의 효력, 통일법의 헌법적 좌표 등)



02 법제도 기반구축의 성과 (3)

✓ 저서·논문·자료집 등 발간

- 저 서 : 통일헌법의 이해(2016), 통일법의 이해(2018), 평화와 법(2018),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2020) 등 9권
- 학술논문 : 북한의 입법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체계(2021), 통일과정에서의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2022),
통일을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2023),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2024),
중국 일국양제의 한반도 통일과도기 법제에 대한 시사점(2025) 등 30여 편
- 학 술 지 : ‘통일과 법률’(연 2회 발간, 제26호까지 발간)을 발간하고,
연구사업을 통한 연구성과를 ‘북한법의 체계적 이해’, ‘통일법의 체계적 이해’,
‘통일법 판례 연구’ 등을 발간하여 자료로 존안



7

02 법제도 기반구축의 성과 (4)

✓ 기 타

- 통일부, 법무부 등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방안,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위한 법률(안) 등 현안에 대한 자문의견 제출
- 법무부, 통일부, 법제연구원 등으로부터 ‘통일법제 연구성과 분석평가와 활용방안’, ‘남북한 의료법제 통합방안’, ‘남북접경지역 발전방안’, ‘북한법령용어사전 발간’ 등 국가기관 영구용역 과제를 수행



8

03 향후 과제 (1)

✓ 통일법제 연구 확산

- 남북관계의 경색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립으로 인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어, 남북관계에서 법적 현안이 발생하지 않고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음.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구주제를 다변화하여 남북한 법제도의 통합, 법률과 사법제도의 통합,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03 향후 과제 (2)

✓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기능 강화

- 통일을 정태적 결과가 아니라 동태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통일을 완성하기 위한 통일작업은 이미 시작된 것이므로 통일을 대비하는 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확산되고 지속되어야 할 것임.
- 평화학과 통일학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북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작업을 지속하여 업데이트하고, 전문가 양성과 교육, 신진 연구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03 향후 과제 (3)

✓ 학내 연구 네트워크의 체계화

- 2021년 통일을 중심으로 평화·인권·안보 등 사업을 확장하고, 20여개 사업팀이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는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사업팀의 연구성과를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할 것이 요구됨.
- 인접 분야의 사업팀은 공동연구(공동논문)를 실시하여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유관 사업팀의 연구성과를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며, 차년도 연구사업을 통해 피드백을 강화하는 등 학내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제2세션>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 성찰과 전망

통일기반에서 평화기반으로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역량 구축
10년의 성찰과 다음 단계

발표 문진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20주년 학술회의]

통일기반에서 평화기반으로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역량 구축 10년의 성찰과 다음 단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문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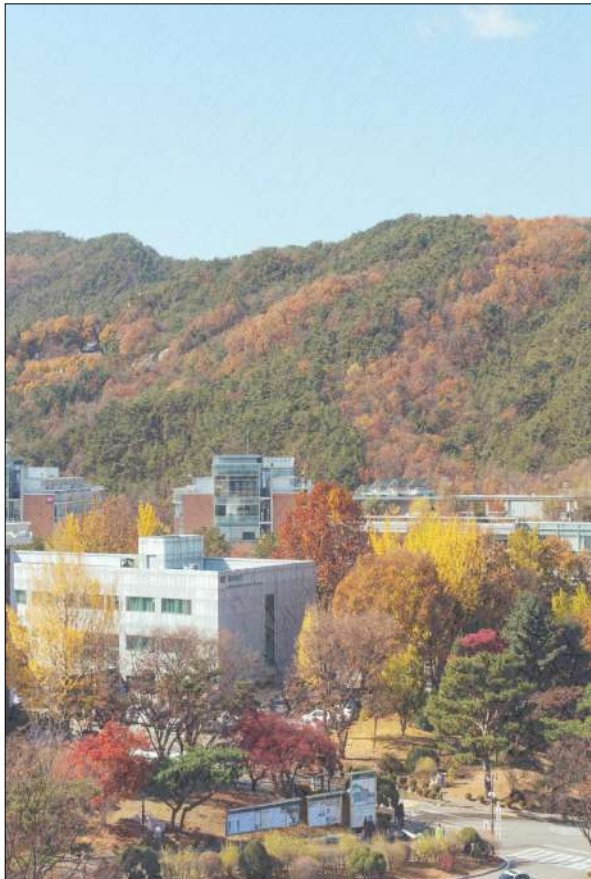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는 지난 10년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한반도 건강(health on the Korean Peninsula)’ 관점에서 보건의료 협력 역량을 축적해 왔다. 본 발표는 2015-2025년 사업의 흐름을 연건캠퍼스(의과대학·병원)의 임상·교육 자원과 관악캠퍼스(학제 간 연구기반)의 정책·데이터·기술 역량이 결합되어 온 과정으로 정리하고, ‘성찰과 전망’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제안한다. 특히 2021년 이후 센터가 사업 운영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의 초점을 ‘인재·네트워크’ 중심에서 ‘근거 기반 모델과 실행체계’로 확장해 온 점을 강조한다.

1기(2015-2020)는 통일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과 통일보건의료 DB 운영을 기반으로, 대북 보건의료지원 국제 네트워크 및 제3국 협력, 동북아 협력·R&D 연계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협력 담론을 ‘사람과 지식’의 축적 위에 올려놓고, 향후 정책 설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협업 채널을 마련했다.

2기(2021-2022)는 코로나19로 대면 교류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온택트 기반 인적자원 개발과 차세대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지식 공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초점을 맞추며 협력의 ‘연결 방식’을 재설계하였다. 교육·세미나·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전문성의 지속을 도모하면서도, 변화한 환경에서 실현 가능한 협력 옵션을 재정렬했다.

3기(2023-2025)는 기후변화와 건강영향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한 ‘스마트 보건지소 모델’ 개발을 3개년으로 추진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보건의료 ODA 연구 기반 구축, 최신 현황·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일의료 교과서 개정 기반 마련 등으로 성과를 ‘현장 적용 가능한 모델’과 ‘표준화된 지식체계’로 확장하였다. 이는 단순한 연구 산출을 넘어, 데이터 수집-분석-조기경보-대응으로 이어지는 실행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10년의 축적은 사람(교육·인재), 연결(국제·전문가 네트워크), 증거(DB·데이터·분석), 실행(현장형 모델·EWARS·교과서 개정 기반)이라는 네 가지 자산으로 집약될 수 있다. 본 발표는 이러한 축적이 2015-2020년의 기반 형성, 2021-2022년의 연결 방식 재설계, 2023-2025년의 실행 구조와 모델 구체화로 이어져 왔음을 성찰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방향을 제안한다. 아울러 『통일 의료 2.0: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출간은 그간의 연구와 교육 성과를 하나의 지식 자산으로 정리·확장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에는 한반도 보건안보·복원력 중심 협력, 데이터-조기경보-대응의 표준화, 연건-관악-국제 협력 기반의 확장을 통해 통일기반의 성과를 평화기반의 실행성과 표준화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 1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소개
- 2 (2015~2020년)
1가: 인재·DB·국제협력 기반
- 3 (2021~2022년)
2가: 팬데믹 이후 네트워크 재설계
- 4 (2023~2025년)
3가: 현장형 모델과 실행체계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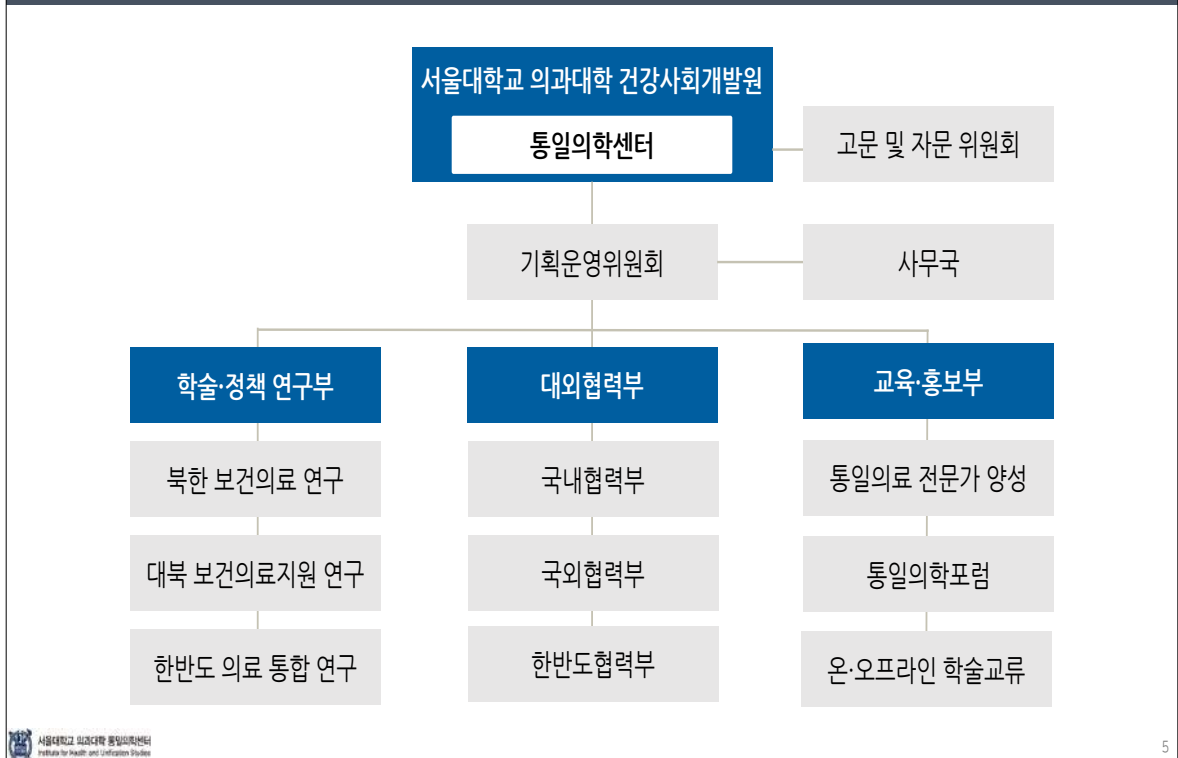


Part 1 기관소개 **1.1. 통일의학센터 미션 및 비전**



Part 1
기관 소개

1.2. 통일의학센터 연구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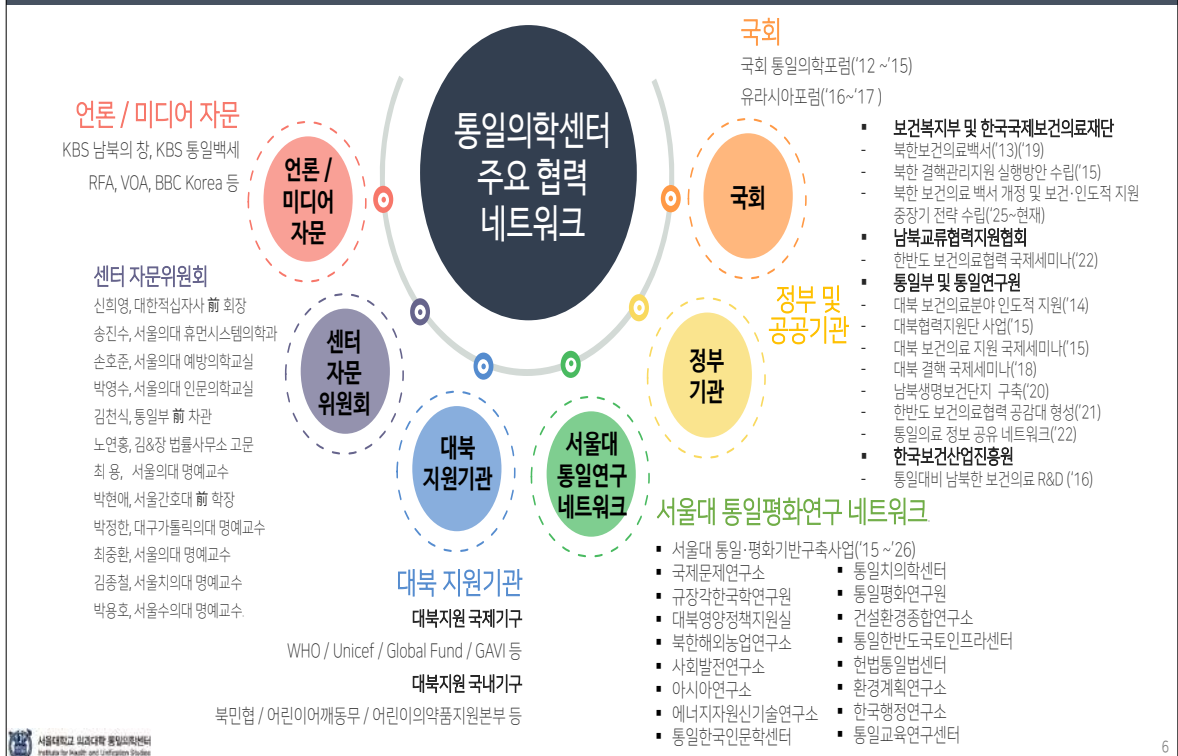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Institute for Health and Unification Studies

5

Part 1
기관 소개

1.3. 통일의학센터 주요 협력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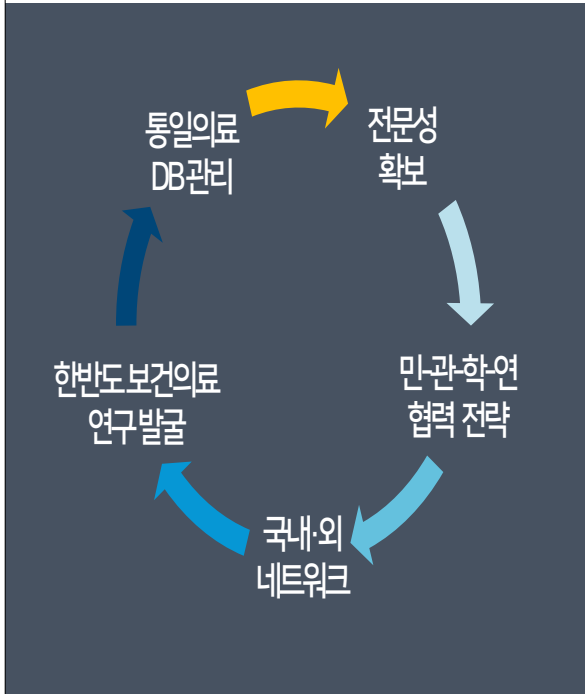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Institute for Health and Unification Studies

6

Part 1
기관 소개

1.4. 통일의학센터 활동



통일의학센터 주요 분야 활동

- ✓ **한반도 보건의료 연구 발굴**
시의성있고 지속적인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 모색
- ✓ **통일의료 DB 관리**
북한 보건의료 최신 현황 및 대북 지원 정보 수집
- ✓ **관련 교육 및 연구 수행으로 전문성 확보**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전문가 교육 기획 및 수행
- ✓ **민·관·학·연 협력 전략 수립**
관할 부처에의 자문 제공 및 민간단체/대학/연구소와의 협력
- ✓ **국내외 네트워크 연계**
국내외 북한 분야 연구자와 연구기관, 대북 지원 참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으로서 역할

Part 1
기관 소개

1.5. 통일의학센터 수행 연구 (2013~2018년)



- ❖ 북한주민의 질병관과 질병행태 (2013.7)
- ❖ 북한 보건의료 백서 (2013.7)
- ❖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방안 (2014.12)
- ❖ 북한 결핵관리지원 중장기 실행방안 수립 (2015.3)
- ❖ 대북 백신지원사업 참여기관 국제협력력 강화 세미나 (2015.3)
- ❖ 대북 결핵지원사업 참여기관 국제 세미나 (2015.8)
- ❖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 기획 (2016.3)
- ❖ 통일의료 -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2017.2)
- ❖ 대북 결핵지원사업 참여기관 국제협력력 세미나 (2018.10)
- ❖ 남북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통일대비 의료인력 통합방안 (2018.11)

Part 1
기관 소개

1.5. 통일의학센터 수행연구 (2019~2023년)



- ❖ 북한보건의료백서 (2019.12)
- ❖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축을 위한 남북의료 현황 비교 분석 (2020.9)
- ❖ 남북생명보건단지 구축 추진계획 (2020.12)
- ❖ 통일의료 HRD - 통일의학센터의 인적자원개발과 교육 (2021.1)
- ❖ 한반도 평화의료교육 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 (2021.8)
- ❖ 북한과학기술집지 분석을 통한 천연물신약상품 동향연구 (2021.10)
- ❖ 한반도 생명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보건의료협력 국민공감대 형성방안 (2021.11)
-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통한 협력 공감대 확산방안 (2022.10)
- ❖ 2023 북한보건의료 아카데미 심화과정운영 (2023.9)

서울대학교 외교대학 통일의학센터
Institute for Health and Unification Studies

9

Part 1
기관 소개

1.5. 통일의학센터 수행연구 (2024~2026년)



- ❖ 2024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기본 및 심화과정) 위탁운영 (2024.11)
- ❖ 남북 기후변화 및 건강영향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한 스마트 보건지소 모델 개발에 따른 한반도 맞춤형 감염병 조기경보대응시스템(EWARS) 구축 및 운영 실무매뉴얼 (2025.12)
- ❖ 통일의료 2.0: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2026.2)

2026년 수행예정연구 및 교육

- ❖ 제25회 통일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2026.5.21)
- ❖ 북한보건의료백서 개정 및 보건 인도적 지원중장기 전략수립 연구 (2026.9)
- ❖ 통일의료 및 한반도 보건안보 인식확산을 위한 전문교육운영 (2027.2)
- ❖ 북한보건의료 및 한반도 보건안보 동향 월간 분석 연구 (2027.2)

S+UNI-Q

SNU+UNI+Q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에서 북한 보건의료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뉴스레터, 'S+UNI-Q'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통일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구독 바랍니다.

• S+UNI-Q의 의미
- SNU (서울대) + UNification (통일) + Question (질문/탐구)

• 주요 내용
- 북한 보건의료 최신 동향 분석 및 통일의학센터 주요 소식 전달

• 구독자 특별 혜택
- '통통 열린강좌', '통보리 아카데미' 등 센터 주관 주요 행사 사전 신청 링크 우선 제공

• 발간 일정
- 연 3회 정기 발간
(6월, 9월, 11월 중 예정)



통일의료 뉴스레터
<수니크SUNIQ> 구독신청

ihusnumc@snu.ac.kr
또는 02-740-8857



서울대학교 외교대학 통일의학센터
Institute for Health and Unification Studies

10

Part 1
기관 소개

1.6. 통일의학센터 수행 교육 (2014~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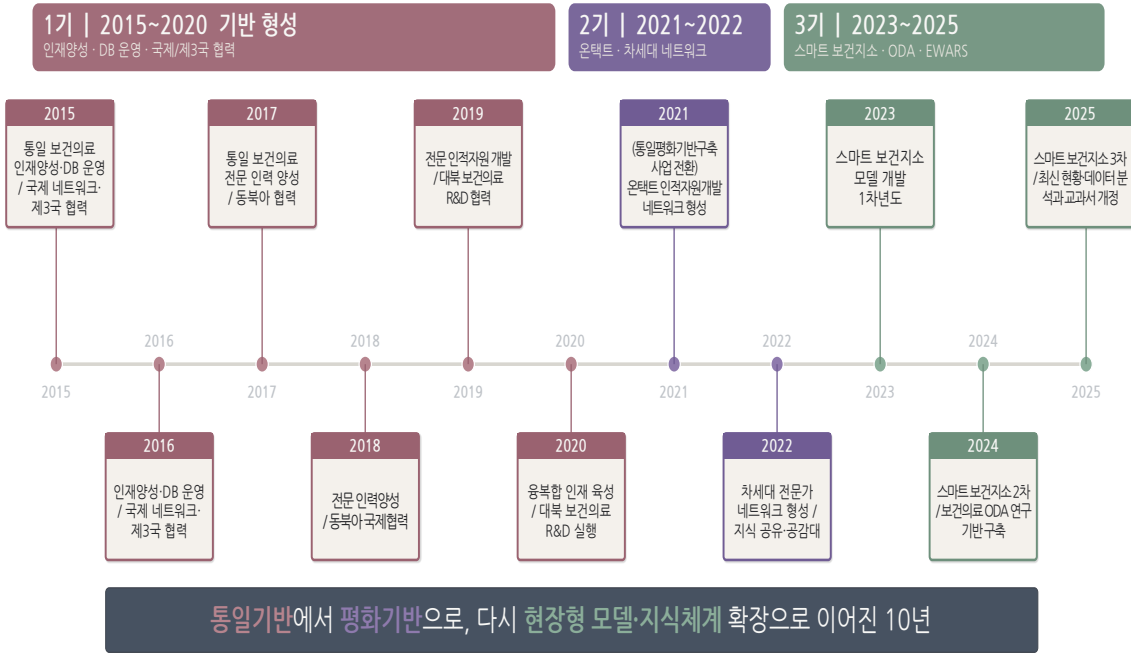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통보리 아카데미)〉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統通 열린강좌)〉

Part 1
기관 소개

1.7. 한눈에 보는 서울대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Part 2
(2015~2020년)

1기:
인재·DB·국제협력기반

Part 2
1기 **2.1. 1기: 통일 보건의료 체계의 3요소**



Part 2
1기

2.2. 통일의료 전문 DB 구축

대북지원의 종합적·체계적 파악

- 국외 대북지원 현황 분석
다자간·양자간 ODA 기구, 국제 NGO 지원현황 파악
- 국내 대북지원 현황 분석
정부·민간 주도 대북지원 현황 파악

북한 보건 의료체계 현황 분석

- 영역별 북한 보건 의료지표 변화
- 보건 의료 전달·재정·정책 집행 체계
- 90년대 이후 구성요소별 변화
- 주요 질환별 관리 체계 분석

대북지원 정책에서 효과적 정부 역할 제시

- 국외 대북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ODA 지원에서 정부의 역할 파악
-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와 정부의 체계적 역할 구분
- 지속적인 국내외 대북지원 동향 추적과 정부의 대응

지원 현황 분석 → 체계 분석 → 정책 역할 제시의 3단 구조

Part 2
1기

2.3. 단계별 인재양성 기반의 형성

일반대중대상 교육



- ✓ 통일의료에 대한 대중 의식 고취
- ✓ 한반도 보건 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통일 보건 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since 2014 / 연간 2~3회)

예비 보건 의료인 교육



- ✓ 북한 보건 의료 최신 현황 이해
- ✓ 예비 의료인의 대북 보건 의료 지원 필요성 인식 증진
- ✓ 전문특강/경학으로 인식 함양

서울대학교 의과과 강의
(since 2015 / 매년 2학기 개설)

통일의료 전문가 교육



- ✓ 효율적인 한반도 보건 의료협력 을 위한 전문 네트워크 형성
- ✓ 민·관·학 협력의 장 마련과 보건 의료 교류협력 아이디어 창출

통일 보건 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since 2016 / 연간 1~2회)

통일의료 차세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HUNEP) (since 2021 / 연간 1회), 서울의대 의학과 '의학연구' 개설 (since 2017 / 연간 1~2회)

Part 2
1기

2.4. 국제 네트워크 기반의 형성-대북 백신지원사업 국제세미나

개요

- 일정: 2015. 3. 26. (목)
- 장소: 서울대 암연구소 이견희홀
- 주관: 통일의학센터, 통일연구원

목적

- 대북 필수 백신 공급의 국제 협력 및 공여기관 간 조정 필요
- 대북 백신지원 사업의 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 방지
- 대북 백신지원사업 참여기관 간 컨소시엄 구축 및 국제협력 방안 추진

주요 참석기관

- UNICEF(평양사무소), IVI(사무총장), Caritas, GAVI, WHO
- 대북 예방접종 지원 기술자문단



대북 국제협력 방향성 논의

- 백신지원사업 참여 국제기구(GAVI, WHO, UNICEF, IVI, Caritas) 및 민간단체 협력유도
- 전염병역학, 소아감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 운영 및 공여기관·기술자문단 합동 세미나 추진
- 유사사망률 및 질병률 방지를 위한 효과적 국가주도 예방접종체계 수립 방안

Part 2
1기

2.4. 국제 네트워크 기반의 형성-대북 결핵지원 국제세미나

개요

- 일정: 2015. 8. 28. (금)
- 장소: 서울의대 국제관 옥정홀
- 주관: 통일의학센터, 통일연구원

목적

- 북한 결핵현황 파악 및 평가를 통한 정보공유
- 대북결핵사업지원의 체계적 수행과 효율성 제고
-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적 지원방안 마련

주요 참석기관

- 글로벌펀드, Stop-TB Partnership, 캘리포니아주 보건국, 북한결핵모니터링팀, Caritas 독일
- 통일교육원, KOFIH, 사단법인 봄, 유진벨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대북 국제협력 방향성 논의

- 국제기구 및 기관별 북한결핵현황 평가, 추후 지원방향 논의
- 결핵진단 및 실험실 역량강화 방안 마련 및 국가유병률조사 추진 방안
- 결핵치료 및 다제내성결핵관리 역량강화 및 확장 방안
- 약제내성환자 수요 논의 및 1, 2차 약제지원 충분성 및 제한점 논의


2.5. 단계별 제3국 협력 축 형성




2.5. 단계별 제3국 협력 축 형성

- 1단계**


연변대학 부속병원 재중동포 의료인 서울대병원 연수

 - 소아과를 시작으로 연변대학 부속병원 범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연수 참여자는 북한 의료인 재교육 시 사업교육 대상자로 참여 예정
- 2단계**

남-북-중 의료인 연수사업 및 의료학술교류 추진

 - 연변대학에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료진을 초청하여 교육
 - '장백산포럼'을 통한 남북 의료진 학술교류 및 R&D 협력체계 구축
- 3단계**

북한 평양의학대학 의료진 재교육 정례화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료진 교육 정례화
 - 남북한 의료진이 협력하여 북한 내 의료진 재교육 참여
- 4단계**

연변대학 E-library 시스템 구축

 - 북한 평양의학대학에 최신 의학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 남-북-중 간 연구자, 의료인력 학술교류 기반 마련
 - 향후 평양의학대학에 의학기술 정보 공유, 지원 시스템 확장

Part 2
1기

2.5. 단계별 제3국 협력 축 형성 - 중국 연변/단동



1단계 연변 연수 기반 형성

- 연변대학 부속병원 의료인의 서울대병원 연수 추진
- 소아과를 시작으로 실질적 협력 접점을 확보
- 연수 참여자 간 후속 교류를 통해 사업 기반을 축적

2단계 공동 교육·교류의 확장

- 의학인력간 상호 교류와 공동 세미나를 준비
- 현장 연수를 통해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학술교류와 R&D 협력의 토대를 형성

3단계 재교육 정례화와 확산

- 북한 의료진 재교육 체계 구상과 정례화 준비
- 임상 역량과 교육 협력의 동시 강화를 지향
- 정보지원 체계로 이어지는 장기 협력 구조 상정

연변 연수 → 공동 교육·학술교류 → 재교육 정례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협력 구조를 구축

Part 2
1기

2.5. 단계별 제3국 협력 축 형성 - 몽골 NCCD



협력 전환의 배경

- 2019년 1월 몽골 국립의과대학·국립감염병 센터 의료진과 사업 협의
- 2016-2018년 중국 의료인 연수 경험을 공유 하며 협력 범위를 확장
- 남-북 몽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창구를 모색

NCCD와의 현장 협의

- 몽골 감염병센터는 사업 이해도 표출과 협력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
- 첫 만남에서 MOU 방향과 사업 추진 협의 조정
- 시설 탐방을 통해 몽골의 의료환경과 여건 파악

의의와 시사점

- 제3국 협력 채널을 중국에서 몽골로 다변화
- 감염병 분야를 매개로 보다 실무적인 협력 가능성을 확인
- 향후 R&D 및 교육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중국 연수 경험을 몽골 협력으로 연결하며 국제협력의 통로를 넓히고, 이후 실행형 협력의 발판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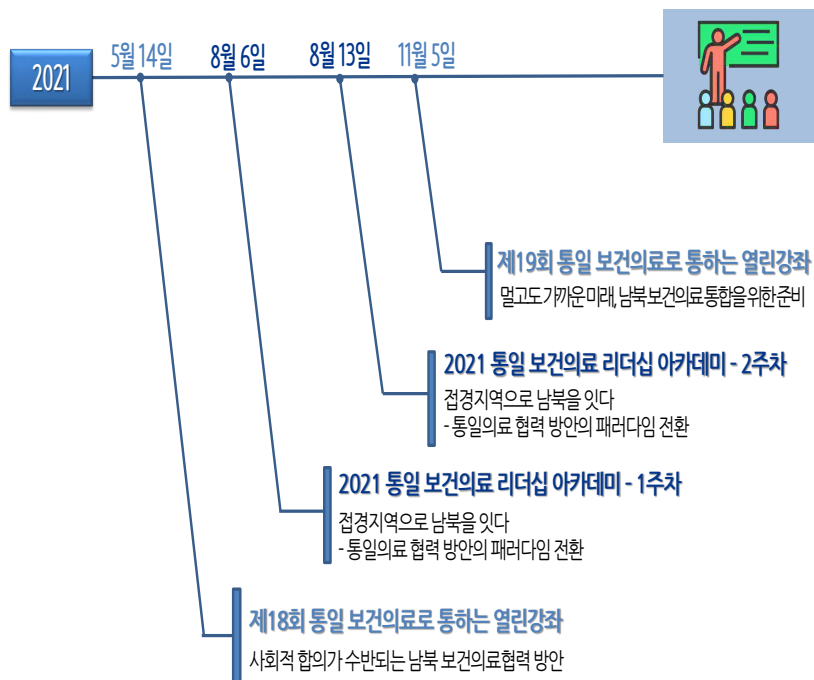
Part 3

(2021~2022년)

2기:
팬데믹 이후
네트워크 재설계

Part 3
2기

3.1. 2기: 네트워크 재설계 - 온택트 전환



Part 3
2기

3.2. 온택트 교육: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제18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2021.5.14)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는
남북 보건의료협력 방안

그간 다뤄오지 않았던 남북 보건의료협력
공론화 형성 과정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파악하고자 함

제19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2021.11.5)

멀고도 가까운 미래,
남북 보건의료 통합을 위한 준비

남북 보건의료 통합을 위한 준비를 모토로
통일의료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
연자를 섭외하여 강의 진행



Part 3
2기

3.2. 온택트 교육: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2021 통보리 아카데미 (2021.8.6/8.13)

접경지역으로 남북을 잇다
- 통일의료 협력 방안의 패러다임 전환

통일의료 협력 과정에 있어 기존과 다른 원헬스(One Health)
요소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남북생명보건단지 연구와 접경지역 관련 연구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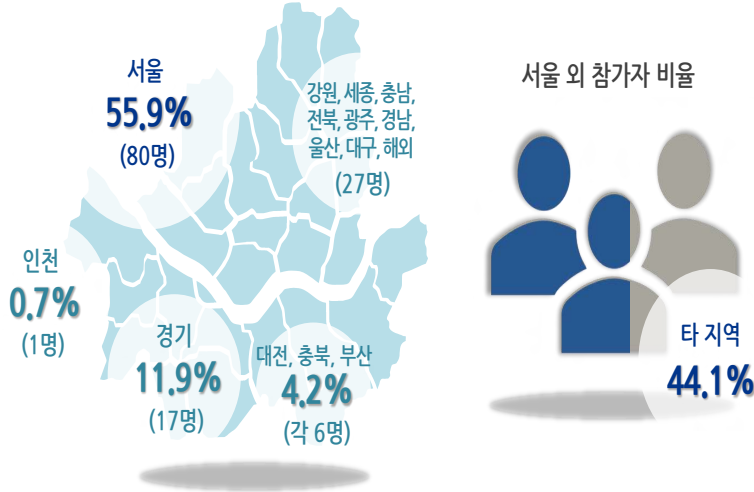
※ 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 ❖ [총론] 한반도 건강생명공동체 준비를 위한 새로운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준비 (박상민 교수, 통일의학센터)
- ❖ [농생명] 남북 농생명 분야 연구 및 교류협력 방안 (허성기 객원교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 [영양] 남북 영양건강분야 연구 및 교류협력 방안 (이수경 교수,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 [법] 남북 검역 협력에 관한 법제도화 방안 (이윤현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 [개발]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 (김갑삼 박사, KT 자산운용팀)
- ❖ [환경] 접경지역 그 이후, 환경보건 이슈를 통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방안 (김현 교수, 미네소타대학교)



3.3. 통일이료 온택트 교육 통계- 지역별 통계

❖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 참가자가 다수이나, 온택트 기반의 강의가 지속됨에 따라 서울 외 지역 참가자의 비율이 2020년보다 7.9%p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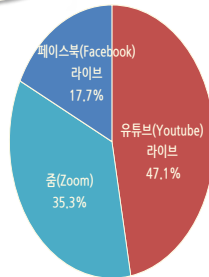


2021년 <통통 열린강좌>와 <통보리 아카데미> 사전참가신청자 282명 중 응답자 143명 기준

3.3. 통일이료 온택트 교육 통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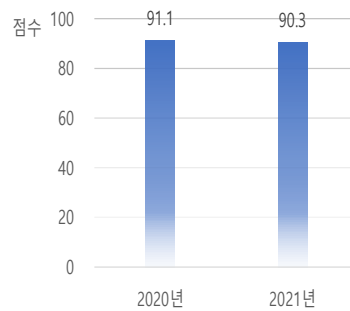
추후 비대면 강의 진행 시 추천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 **선호 매체**

- ❖ 온택트 기반의 강의를 진행할 때, 매체의 선택은 효율성 및 효과성과 관련
- ❖ 유튜브-줌-페이스북 순으로 나타남
- ❖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동일한 결과

이번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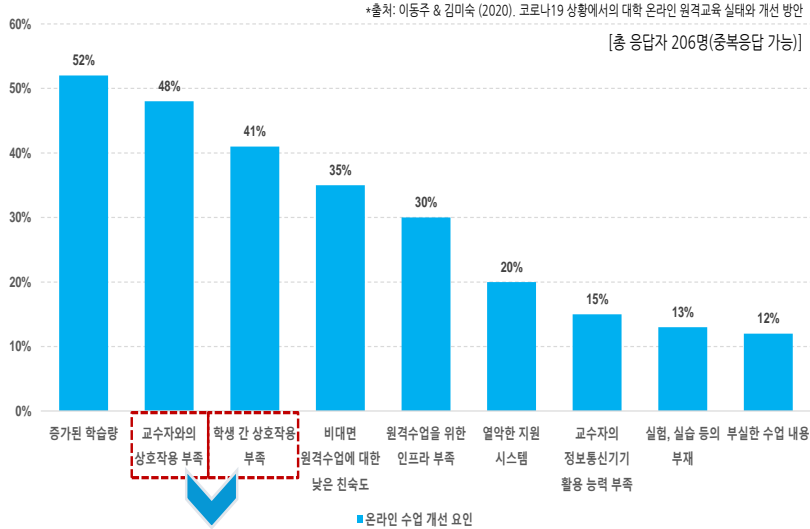
※ **종합 평가**

- ❖ 2021년 기준, 교육과정 만족도에 대한 답변은 100점 환산 점수로 변환 시, 90.3점
- ❖ 부정적 답변은 0.0%로 나타남
- ❖ 매년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2021년 <통통 열린강좌>와 <통보리 아카데미> 사전참가신청자 282명 중 응답자 143명 기준

Part 3
2기

3.4. 통일의료 지식 공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육의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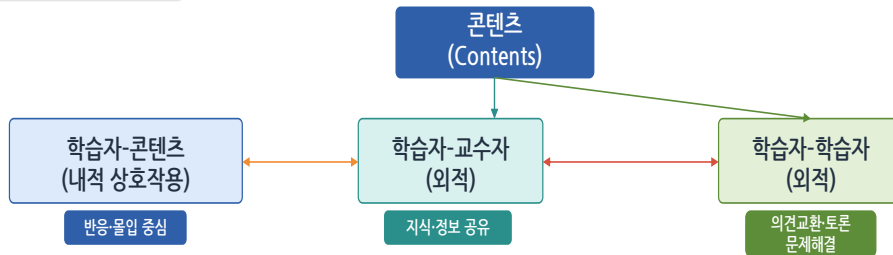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카데미 및 열린강좌에서 나타나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

Part 3
2기

3.4. 통일의료 지식 공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육의 발전 방향

온라인 상호작용 구조 내적 상호작용 중심의 현재 운영에서 외적 상호작용 설계를 강화할 필요



- ① 학습자-콘텐츠 상호작용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의 요구에 반응하거나 몰입하여 학습하는 활동 (내적 상호작용)
- ② 학습자-교수자 상호작용 교수자와 학습자가 학습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 (외적 상호작용)
- ③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 학습자들 간에 학습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토론, 문제해결 등을 함께 수행하는 활동 (외적 상호작용)

개선 방향

- '학습자-학습자' 및 '학습자-교수자' 간 외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설계가 필요함**
- 온라인 게시판·소그룹 활동 등을 활용해 학습자 간, 학습자-교수자-진행자 간 교류를 활성화
 -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또는 대면 강의 시도 가능
 - 보다 활동적인 웨비나 방식으로의 전환 (예: YouTube → Zoom)
 - 대면 하이브리드 운영 시에도 녹화 영상물 공유하여 접근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유효



Part 4
3기

4.1. 3기: 현장형 모델과 실행체계 확장

남북기후변화및건강영향모니터링기능강화를위한 스마트보건지소모델개발기반조성(1~3차년도)

1. 기후민감질환 조기경보대응체계 매뉴얼 개발 (기반 조성)

조기경보 대응시스템을 통해 북한 내 기후 취약 지역의 기후 민감성 질병 발생률 감소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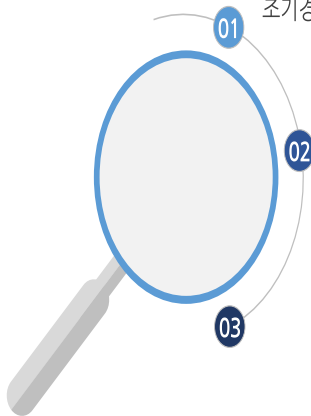
2. 재생 에너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실험/분석)

북한 지역의 기후 및 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재생 에너지 생산 모델을 구축하여 통일 후 북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유용한 참고자료 제공

3. 스마트 보건지소 모델 및 매뉴얼 제시 (성과 창출)

오지 등 외딴 지역에 있는 보건의로 기관과 연계한 소규모 독립형 재생 에너지 생산-운영 시스템에 대한 실증 결과 보급

- 북한 등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부족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보건지소 운영 모델 및 한반도형 감염병 조기경보시스템 매뉴얼 제시
- 보건의료를 넘어 교육(외딴 지역에 있는 학교 등) 및 기초 생활(취사 및 난방) 등으로 모델 확장 가능



Part 4
3기

4.2. 재생에너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모델 제안

01 시스템 시험 운영 장소 선정

- 2차년도 연구를 통해 선정된 복한 환경과 유사한 모니터링 후보지 중, 평창군 보건의료원 협조를 통해 대화보건지소를 시스템 테스트 운영 대상으로 선정

번호	건축물명	주소	사업 내역	발전설비용량 (kw)	설치금액 (원)	설치시기
1	도돈보건진료소	평창군 평창읍 평창강로 854	태양광발전설비 구매설치 (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	5.95	23,717,000	2022.12.
2	거문보건진료소	평창군 진부면 거문길 13-3		7.14	25,964,000	
3	유천보건진료소	평창군 대관령면 전나무길 8		7.14	26,727,000	
4	봉평보건지소	평창군 봉평면 기풍8길 32-4		7.14	27,715,000	
5	면운보건진료소	평창군 봉평면 진조길 14		7.14	27,222,000	
6	미탄보건지소	평창군 미탄면 창리 710-1		9.6	28,671,000	2021.11.
7	대화보건지소	평창군 대화면 남산1길 36		9.6	28,040,000	
8	용평보건지소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10		9.6	28,559,000	
9	계촌보건진료소	평창군 방림면 운지로 294-14		9.6	28,392,000	
10	두일보건진료소	평창군 진부면 방아다리로 338-3		9.6	27,874,000	

Part 4
3기

4.2. 재생에너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모델 제안

02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태양광 패널과 인접한 위치에 차폐 간섭이 없고 태양광 패널과 동일한 조광이 가능한 지점 선정
- 2차년도에 개발한 재생에너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셋업 및 데이터 수집 및 운용 테스트 수행



재생에너지 스마트 모니터링 센서 플랫폼 설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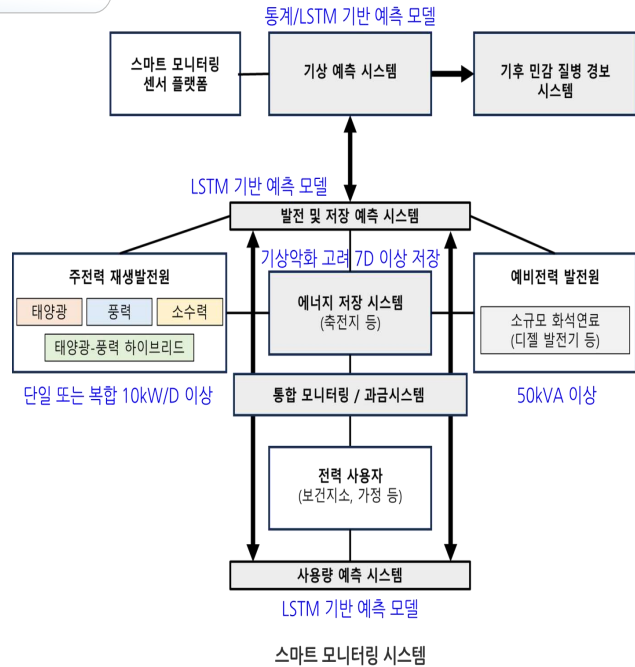
재생에너지 스마트 모니터링 센서 플랫폼 설치 후

수집 중인 데이터

4.2. 재생에너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모델 제안

03 시스템 세부 구성

- 시스템 구성
 - 기상 예측 시스템: 기후 민감질환 경고시스템 및 발전 예측 시스템과 연동하여 기후 징후가 위험할 시 알람 / 전력 발전 예상량을 추정
 - 발전 및 저장(예측) 시스템: 전력 발전량, 저장량을 예측/저장
 - 사용량 예측 / 과금 시스템: 사용자의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향후 사용량을 예측하고 저장시스템의 추세와 비교하여 알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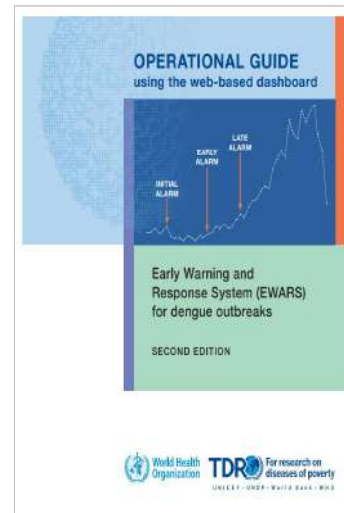
4.3. 한반도형 기후민감질환 조기경보시스템 매뉴얼 개발

01 개발도상국의 기후민감질환 조기경보시스템

WHO has been working with developing countries to implement **climate-sensitive disease early warning and response systems (CR-EWARS)**

Reviewed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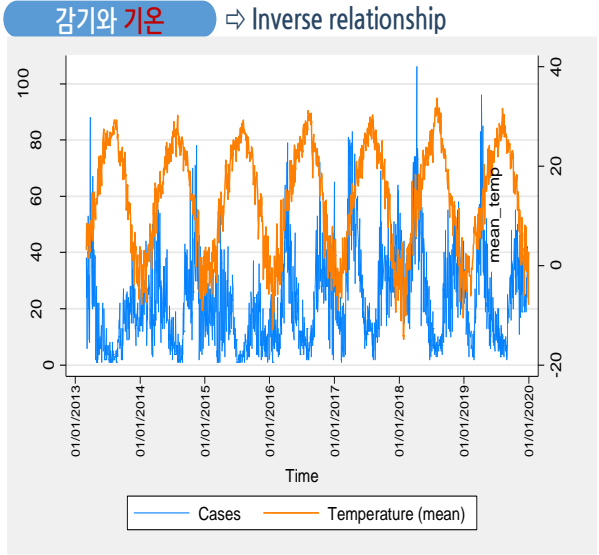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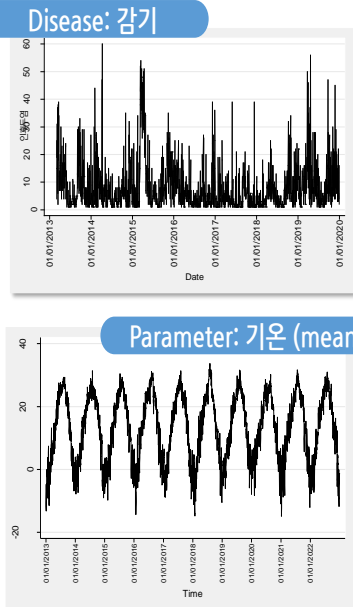
- **Bangladesh** for Cholera & Dengue
- **Cambodia** for Dengue
- **Ethiopia** for Malaria, Cholera & Yellow fever (YF)
- **Malawi** for Cholera & Yellow fever (YF)
- **Mozambique** for Malaria & Dengue
- **Myanmar** for Dengue
- **Nepal** for Dengue
- **Timor-Leste** for Dengue



Part 4
3기

4.3. 한반도형 기후민감질환 조기경보시스템 매뉴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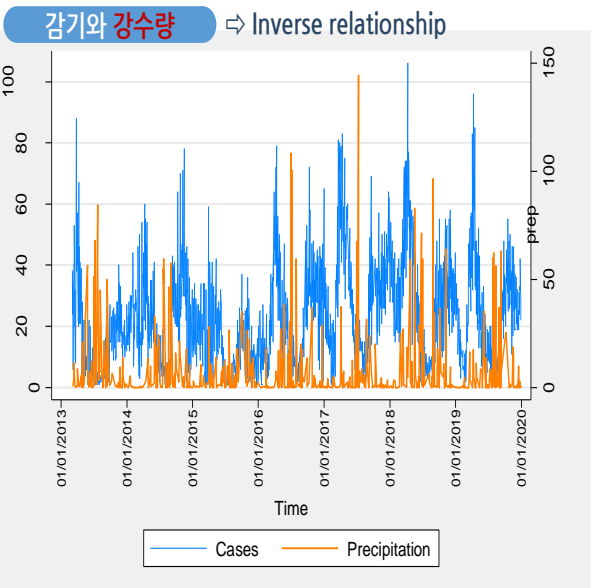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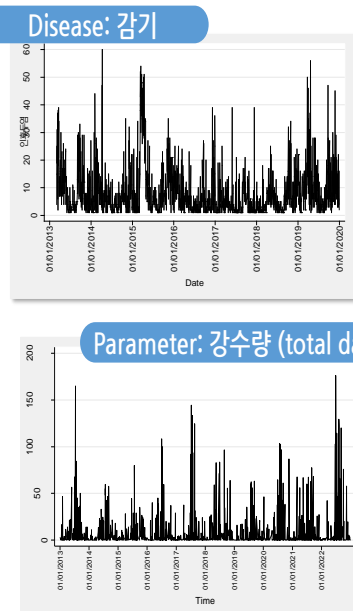
02 1~2차년도 건강 및 기후 데이터 분석 결과 - 감기와 기온



Part 4
3기

4.3. 한반도형 기후민감질환 조기경보시스템 매뉴얼 개발

02 1~2차년도 건강 및 기후 데이터 분석 결과 - 감기와 강수량



4.3. 한반도형 기후민감질환 조기경보시스템 매뉴얼 개발

03 한반도 맞춤형 조기경보대응시스템(EWARS) 매뉴얼 개발

- WHO EWARS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기후·질병 특성에 맞게 현지화
- 주간 단위, 지역 단위, 4단계 신호등, 전문가 개입형 판단으로 정리
- WHO EWARS의 보완적 역할
- 주간(weekly)/권역(zoning) 단위
- 2~4주 선제 신호의 시차(time-lag) 효과
- 4단계 신호등(안전-주의-경계-심각)
- 전문가 개입형(human-in-the-loop) 구조



4.4. 유관기관 및 전문가네트워크 구축 - Stop TB 등 미팅



Achievement and Challenges of International Support for TB Program in North Korea

- ❖ **북한에 의약품과 진단도구 지원의 도전과제**
 - 배송 및 화물 운송에 관한 옵션이 매우 제한적임
 - 물품 배송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대북제재로 인하여 신규 진단 도구의 배송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대북제재 면제의 가능성이 있지만 예측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 **코로나팬데믹 이후의 도전과제**
 - 국제기구의 북한 상주 인원들이 북한을 떠나게 됨
 - 모니터링의 불가능
 - 정기 항공편 운항 중단 및 운송 경로가 더욱 제한됨
 - 검역과 배송 지연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단축되고 있음

북한 결핵 지원은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등의 외부 노력과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수용하고 실행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

Part 4
3기

4.4.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국제 세미나 운영



제7회 아시아 결핵퇴치 협력포럼내 한반도 및 동북아 보건 의료 특별세션 기획 및 운영

- ▶ **[기획목적]** 동북아 및 다자협력 보건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국내 보건 의료 ODA와 대북 보건 의료 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룹 내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만들고자 함
- ▶ **[운영일시]** 2024년 11월 7일 (목)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2시간)
- ▶ **[운영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B1 양운선홀
- ▶ **[세션주제]** 한반도 결핵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한국의 ODA 및 다자협력 추진 방향
- ▶ **[발표 1]** 국내 보건 분야 ODA 사업의 경험과 평가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민상희 전문위원)
- ▶ **[발표 2]**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북한 결핵과 다자협력 (서울의대 예방의학 교실 손호준 교수)
- ▶ **[발표 3]** 한반도 건강안보와 교류 협력을 위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상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박상민 부소장)
- ▶ **[지정 토론]** 국제 보건 애드보커시 최세문 이사,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최홍조 교수, 평창군 보건 의료원 박건희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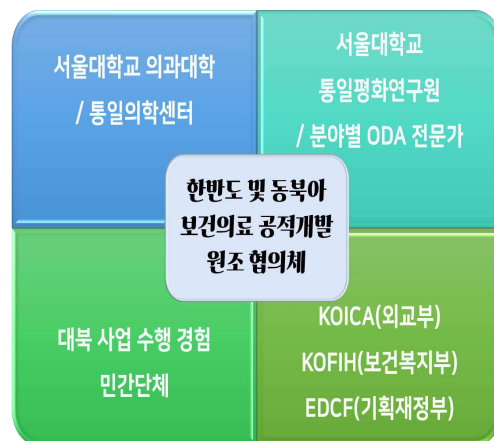
Part 4
3기

4.5. 동북아 보건 의료 전문가 협의체 구축 및 운영

통일 의료 ODA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동북아 보건 의료 전문가 협의체 확대

-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교수진과 교내 분야별 ODA 전문 교수진 확대 모집
- ▶ KOICA와 KOFIH 외 우리나라 ODA의 주축을 담당하는 EDCF (한국수출입은행) 실무진 또는 관계자 컨택
- ▶ 대북 사업 수행 경험을 지닌 보건 의료 민간단체 활동가 모집
- ▶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 및 남북 교류 협력 지원 협회에 협의체 신규 위원으로서 활동 요청

특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통일의학센터
보건 의료 전문가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문가 대상 교육 추진





통일의료 차세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HUNEP

Part 4
3기

4.6. 통일의료 차세대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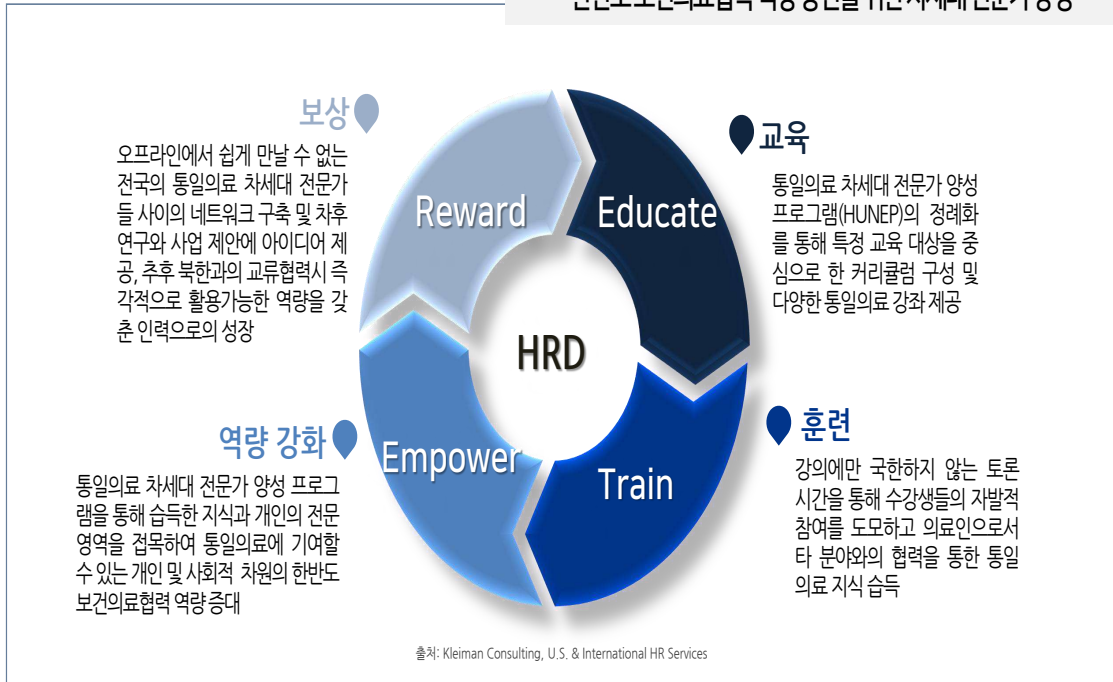
통일의료 차세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H ealth and 
U nification Studies
N ew professional
d E velopment
P rogram 

Part 4
3기

4.6. 통일의료 차세대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역량 증진을 위한 차세대 전문가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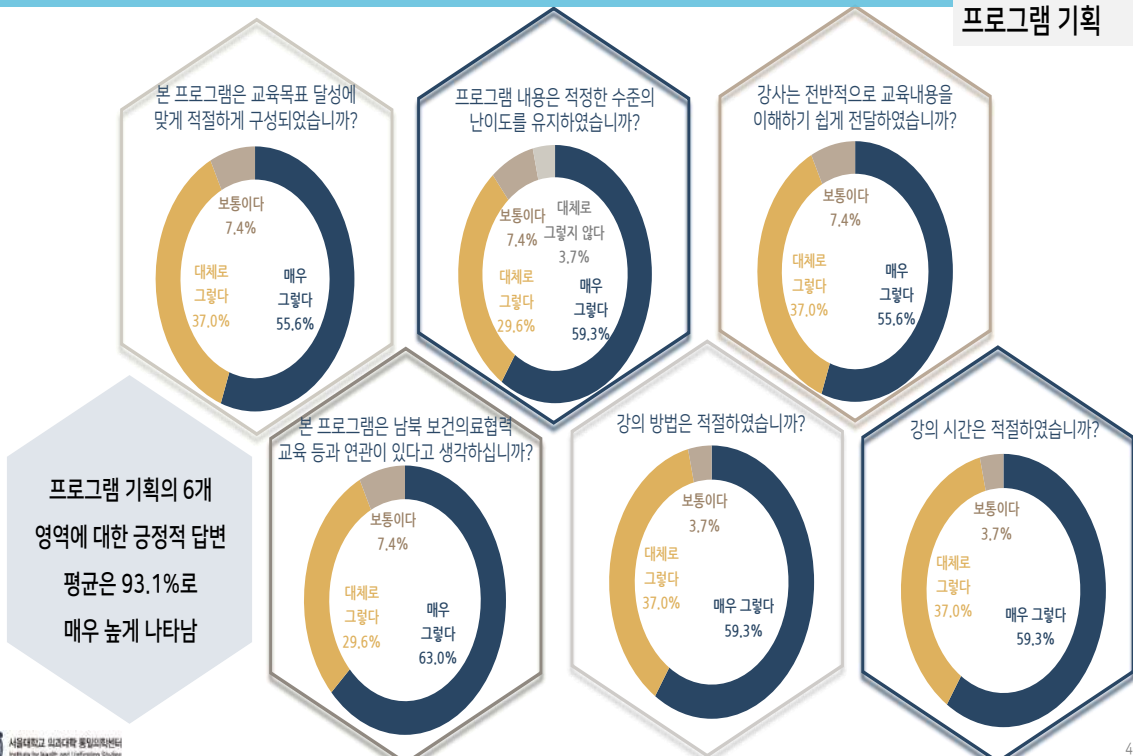


Part 4
3기

4.6. 통일의료 차세대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HUNEP 프로그램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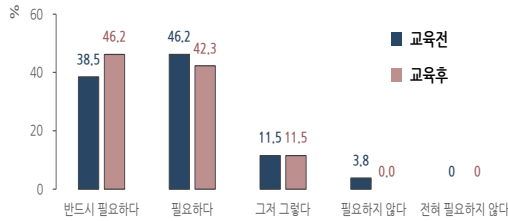
프로그램 기획



4.6. 통일의료 차세대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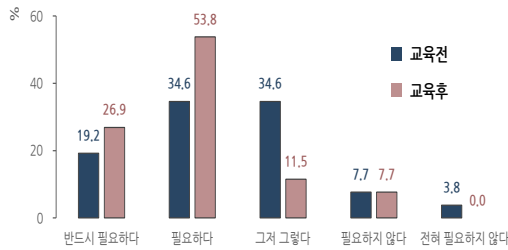
북한에 COVID-19 백신 지원

최근 북한의 오미크론과 관련한 기사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북한에 COVID-19 백신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	0% (0명)	0% (0명)	0% (0명)	0% (0명)
그저 그렇다	0% (0명)	0% (0명)	66.7% (2명)	100.0% (1명)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	50.0% (5명)	41.7% (5명)	33.3% (1명)	0% (0명)
반드시 필요하다	50.0% (5명)	58.3% (7명)	0% (0명)	0% (0명)
교육 후 / 교육 전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지 않다

선생님께서는 남한에 충분한 COVID-19 백신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COVID-19 백신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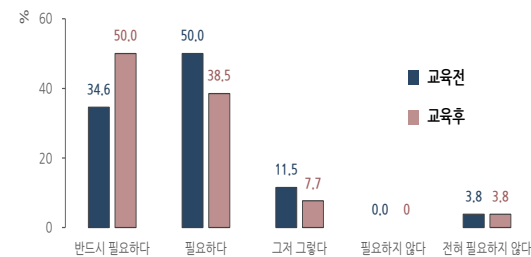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명)	0% (0명)	0% (0명)	0% (0명)
필요하지 않다	0% (0명)	0% (0명)	100.0% (2명)	0% (0명)
그저 그렇다	0% (0명)	0% (0명)	33.3% (3명)	0% (0명)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	20.0% (1명)	88.9% (8명)	55.6% (5명)	0% (0명)
반드시 필요하다	80.0% (4명)	11.1% (1명)	11.1% (1명)	100.0% (1명)
교육 후 / 교육 전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COVID-19 백신 지원에 대한 생각은 교육 전후 모두 긍정적으로 84.7%와 88.5%로 비슷함
- ✓ 남한에 충분한 COVID-19 백신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백신 지원이 필요하다(반드시 필요하다+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3.8%와 80.7%로 **교육 후 비율이 26.9%p 증가**
- ✓ 교육 후 보건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공동체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보임

4.6. 통일의료 차세대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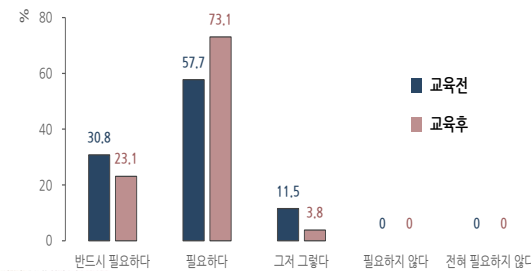
재난위기 상황에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COVID-19와 같은 전 세계의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서 남 북이 공동 대응하여 보건의료 인력과 장비, 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명)	0% (0명)	33.3% (1명)	0% (0명)
그저 그렇다	11.1% (1명)	7.7% (1명)	0% (0명)	0% (0명)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	22.2% (2명)	46.2% (6명)	66.7% (2명)	0% (0명)
반드시 필요하다	66.7% (6명)	46.2% (6명)	0% (0명)	100.0% (1명)
교육 후 / 교육 전	반드시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위 법안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감염병 등의 초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서 남한의 의료인력을 북으로 파견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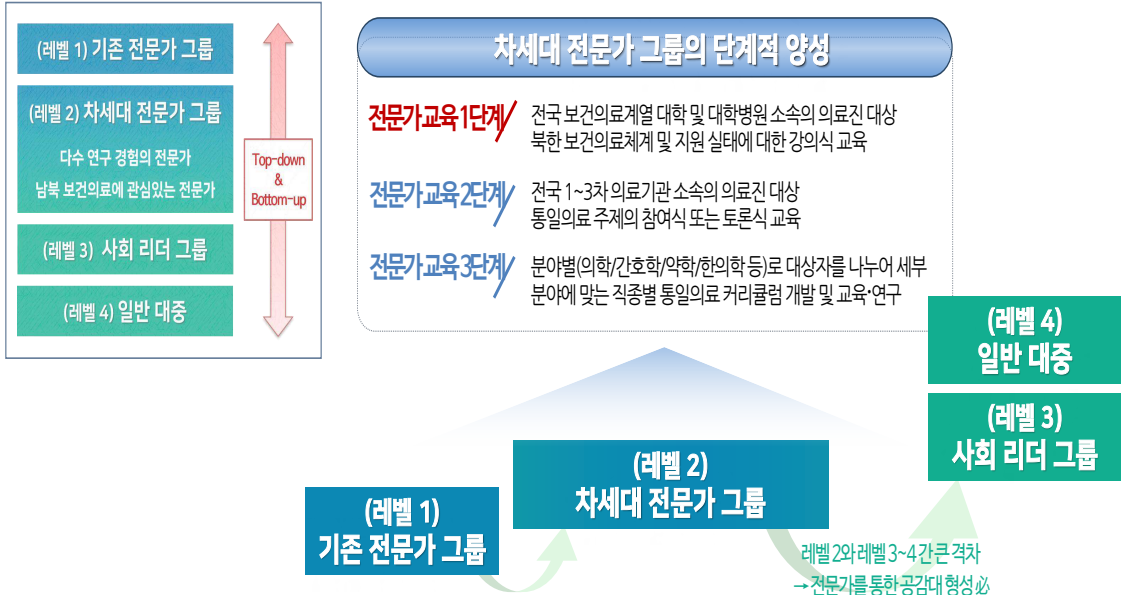


그저 그렇다	12.5% (1명)	0% (0명)	0% (0명)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	37.5% (3명)	86.7% (13명)	100.0% (3명)
반드시 필요하다	50.0% (4명)	13.3% (2명)	0% (0명)
교육 후 / 교육 전	반드시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 ✓ 교육 전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서 남북 공동 대응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100%와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응답한 46.2%가 **반드시 필요하다로 변화**
- ✓ 북으로 남한의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하다(반드시 필요하다+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8.5%와 96.2%로 **교육 후 비율이 7.7%p 증가**
- ✓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의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지원 참여도 또한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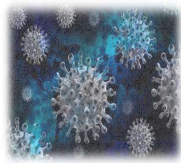
Part 4
3기

4.6. 통일의료 차세대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Part 5
다음 단계

5.1. 『통일 의료 2.0: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출간



『통일 의료』(2017) 개정 배경 및 목적

-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각국의 사회와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침
- ✓ 범세계적 감염병의 확산을 통해 보건의료 위기에 대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인지
- ✓ 북한 의료체계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대북제재와 동시에 작용하면서 의료 인프라, 인력, 의료물자 공급의 취약성이 드러남
- ✓ 이에 따라 한반도 보건안보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
- ✓ 감염병과 보건위기의 초국경적 특성은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 및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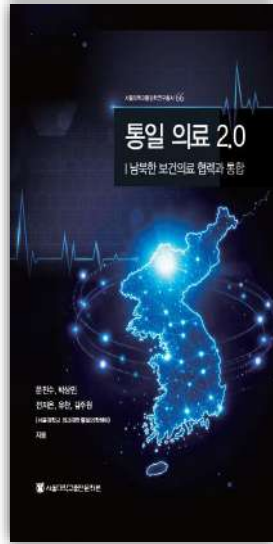
- ✓ 변화한 북한 보건의료 실태를 파악하고 남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격차와 공통점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
- ✓ 국내외 대북 보건의료 지원 현황 분석
- ✓ 통일을 대비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필요성과 한반도 보건안보 및 감염병 대응 분석
- ✓ 북한의 주요 보건지표 현황과 신종 감염성 질환을 포함한 보건 지표 분석

Part 5
다음 단계

5.1. 『통일 의료 2.0: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출간



개정 전 『통일 의료』



개정판 『통일 의료 2.0: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통일 의료 2.0』(2026) 개정 내용 및 활용 방안

- ✓ 유엔 제재와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국제보건 환경
- ✓ 보건의료의 현대화와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과 같은 보건의료분야 디지털 전환
- ✓ 감염성 질환: 신종 감염병
- ✓ 비감염성 질환: 정신건강과 장애
- ✓ 변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협력 양상과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방향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남북생명보건단지 구축 등)



통일의료의 기본서로서 통일 및 보건의료 분야
실무자, 연구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통찰과 지침이 될 것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통합의 초석으로 활용

Part 5
다음 단계

5.2. 통일기반에서 평화기반으로: 다음 단계

A 10년의 축적

- 사람 (교육·인재)
- 연결 (국제·전문가 네트워크)
- 증거 (DB·데이터 분석)
- 실행 (현장형 모델·EWARS·교과서 개정)

B 통일기반에서 평화기반으로의 전환

- 2015-2020: 기반 형성
- 2021-2022: 연결 방식의 재설계
- 2023-2025: 실행 구조와 모델의 구체화

C 핵심 메시지

- 연건-관악 협력이 사업의 구조 전환을 견인
- 네트워크 중심 축적이 실행 기반으로 확장
- 창립 20주년 시점에서 다음 10년의 방향 제시

D 다음 단계

1 한반도 보건안보·복원력 중심 협력

인도적 지원을 넘어 공동위험 대응과 복원력 강화의 관점으로 확장

2 데이터-조기경보-대응의 표준화

현장형 모델과 EWARS 구상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표준 구조 정립

3 연건-관악-국제 협력 기반 확장

임상·교육·정책·기술 역량을 결합한 다층적 협력 플랫폼 고도화

통일기반의 축적을 바탕으로, 평화기반의 실행성과 표준화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제2세션>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 성찰과 전망

"북한 농업과 농정에 대한 연구"의 의미와 성과

발표 임정빈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북한 농업과 농정에 대한 연구”의 의미와 성과

임정빈 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국문 초록>

오늘 발표 자료는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의 지원으로 그 동안(2015년~2025년) 수행해 온 북한 농업 및 농정 관련 연구의 주요 주제와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작성되었다.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은 북한 농업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변화, 북한의 낮은 농업 생산성 및 열악한 생산기반, 중국 편중의 식량 무역 문제,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량생산 문제 등 다양한 연구 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연구 결과는 한반도 농업의 미래와 남북 농업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학술적·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북한 핵 개발과 금강산 민간인 총격 사건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남북 협력사업이 중단되고, 북한 관련 연구사업이 축소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북한농업에 대한 연구 여건이 조성되었고, 북한 농업과 농정에 대한 단계별 심층적인 분석과 장기적 관점의 연구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지속적 연구 기반 제공은 북한 농업의 변화 양상과 식량문제를 분야별로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 농업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통일대비 남북 농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학술적 측면에서 본 사업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서 3권, 논문 5편, 국내외 학술발표 6건, 전문가 초청 세미나 6건, 외부연구과제 3건 수주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농업 생산과 농산물 무역 현황과 동향, 그리고 핵심 농정과제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남북 농업협력 가능 유망 품목과 분야를 발굴 및 제시하고, 향후 통일대비 농업부문의 동질성 회복과 우선적 농업협력 과제 도출에 기여하는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였다.

아울러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한 북한 농업과 농정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 간의 학술적·정책적 의사소통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북한 농업 연구에 대한 외연 확장과 통일 대비 한반도 식량정책 방향 설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한반도 식량문제와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 수립에 있어 학제간 연구 촉진과 북한 농업 및 농정 문제를 연구하는 차세대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이에 본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뜻깊은 기회였고, 이처럼 의미 있는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준 통일·평화연구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앞으로도 북한 농업 및 농정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남북 간 농업협력과 농업부문 동질성 회복,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과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1

들어가며

2

통일·평화 기반구축사업 수행 이력 및 핵심 내용

3

주요 연구성과

4

통일·평화 기반구축사업의 의의와 한계, 제언



1 들어가며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북한·해외농업연구소
 - 북한·해외농업연구소는 통일 대비 남북한 농업협력과 국내외 식량문제와 관련된 동향을 수집 및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1997년 4월에 설립.
 - 제4대 연구소장으로 최장 기간(2014~2024) 역임.
 - 2015년부터 북한·해외농업연구소를 중심으로 통일·평화 기반구축사업 수행

소장 | Director

생산연구부 Divisions of Agricultural Production	북한과 해외의 농림축산물의 생산, 이용,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Research for the production, applic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North Korean and foreign agricultural, forest, and animal products
유통가공연구부 Divisions of Marketing and Processing	북한과 해외의 농림축산물의 유통, 가공 등에 관한 연구 Research for the marketing and processing of agricultural, forest, and animal products
지역개발연구부 Divisions of Rural Development	북한과 해외의 농업과 농촌의 개발에 관련된 교육, 사회, 제도, 환경, 자원정책에 관한 연구 Research for educational, social, systemic, circumstance, and resource policies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국제협력연구부 Divis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북한과 해외의 농업·농촌 교류 및 입력에 관한 연구 Research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 for agriculture and the rural community



2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수행 이력 및 핵심 내용 (2015~2026)

1단계

남북 농정 및 해외 농업협력 정책연구 (2015-2019)

- ▶ 통일대비 한·러·북 농업협력 체계 구축 및 북한 농업인력 활용 시범사업(2015-2017)
- ▶ 통일대비 한·러·북 농업협력 체계 구축 사업: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2018)
- ▶ 통일대비 한·러·북 농업협력을 위한 연해주지역 농축산업의 유망품목 연구(2019)

2단계

북한의 농업생산 및 무역구조 분석을 통한 협력 유망 품목 및 분야 발굴 연구(2020-2023)

- ▶ 북한의 농산물 생산 및 무역동향 분석과 통일대비 남북협력 유망 품목 발굴에 대한 연구(2020)
-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북한의 농정과제와 통일대비 남북유망 농업협력분야 발굴에 대한 연구(2021)
- ▶ 북한의비공식시장마당시장경제및대중매체(노동신문) 분석을통한남북농업협력유망분야발굴(2022)
- ▶ 산업연관분석 및 수입대체효과 추정을 통한 남북 농업협력 경제적 효과 분석(2023)

3단계

기후변화에 따른 남북한 농업 작부체계 및 생산성 변화 전망 연구 (2024-2026)

- ▶ 위성 및 기상 정보를 활용한 북한의 농업생산 추정에 관한 연구(2024)
- ▶ FAO-GAEZ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한반도 농업생태기후대변화와 잠재 농업생산성 분석(2025)
- ▶ 기후변화로 인한 남북한 농업생산 변화 전망 모형 구축 및 경제적 효과 분석(2026)

2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수행 이력 및 핵심 내용 (2015~2026)

1단계 남북 농정 및 해외농업 협력 정책연구 (2015-2019)

- ▶ 통일대비 한·러·북 농업협력 체계 구축 및 북한 농업인력 활용 시범사업(2015-2019)
- ▶ 통일대비 한·러·북 농업협력 체계 구축 사업: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2018)
- ▶ 통일대비 한·러·북 농업협력을 위한 연해주지역 농축산업의 유망품목 연구(2019)

<연해주 농장 및 농업기술센터 방문>



<연해주 내 한국 영농기업>



자료: 연해주 영농지원센터 내부자료(2019년 기준)

6

2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수행 이력 및 핵심 내용 (2015~2026)

2단계 북한의 농업 생산 및 무역구조 분석을 통한 협력 유망분야 발굴 연구 (2020-2023)

- ▶ 북한의 농산물 생산 및 무역동향 분석과 통일대비 남북협력 유망품목 발굴에 대한 연구(2020)
-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일대비 남북 농업협력 유망분야 발굴에 대한 연구(2021)
- ▶ 북한의비공식시장당시장경제및대중매체 분석을 통한 남북 농업협력 유망분야 발굴(2022)
- ▶ 산업연관분석 및 수입대체효과 추정을 통한 남북 농업협력 경제적 효과 분석(2023)



<토픽모델링(노동신문, KREI북한농업동향) 기반 농업협력 유망분야>

분야	농업 R&D	축산	시설 재배	관개 시설	식품 가공	비료	산림 복구
주요 키워드	품종, 연구개발, 과학기술	먹이, 풀, 김집승, 세포지구	채소, 온실, 태양열	물, 피해, 가뭄, 장마철	식료품, 식료, 가공, 공장	거름, 유기질, 과일	나무, 산, 사업

<남북 교류협력 현황>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산업연관 분석을 활용한 남북농업협력 경제효과 분석결과>
(한국 1980, 베트남 2007, 캄보디아 2016 I/O 활용)

남북농업협력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4.04~5.13억 달러	1.09~1.21억 달러 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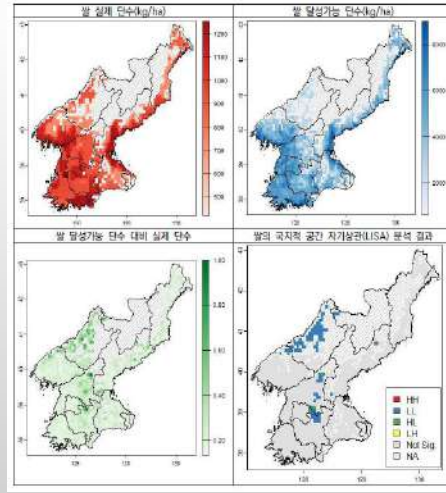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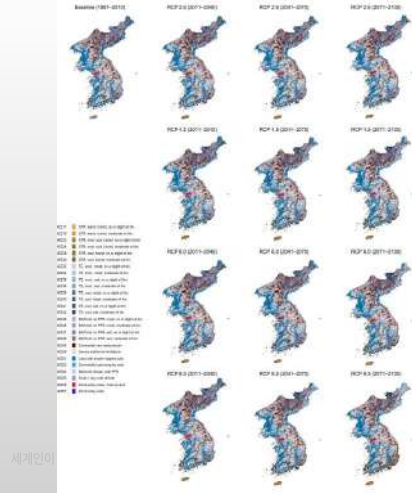
2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수행 이력 및 핵심 내용 (2015~2026)

3단계 기후변화에 따른 남북한 농업작부체계 및 생산성 변화 전망 분석 (2024-2026)

- ▶ 위성 및 기상 정보를 활용한 북한의 농업생산 추정에 관한 연구(2024)
- ▶ FAO-GAEZ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한반도 농업생태기후대변화와 잠재 농업생산성 분석(2025)
- ▶ 기후변화로 인한 남북한 농업생산 변화 전망 모형 구축 및 경제적 효과 분석(2026)

<기후변화 시나리오(RCP)에 따른 농업생태구역(AEZ) 전망>

<북한의 지역별 쌀 실제 단수, 달성가능 단수 및 취약성 공간분포>



세계인

8

3

주요 연구성과

3 주요 연구성과: 학술적 성과

□ 저서 3권, 국내외 논문 5건 (게재 및 심사) 등

- 해외농업개발학의 이해(2016,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북오아시스, 임정빈 공저)
- 연해주 농업개발 중장기 발전전략 및 한국 농산업 진출 확대 방안(2017, 한국농어촌공사, 임정빈 공저)
- 북한의 농업생산인프라 구축에 따른 남북경제효과 분석(2018, 한국농어촌공사, 임정빈 공저)
- Brazil's Agricultural Situation and Export Competitiveness of Soybean in the World and Korean Market(2015, 임정빈,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 북한의 농산물 무역 및 매체동향 분석을 통한 남북협력유망품목 발굴에 대한 연구(2022, 통일연구, 장도환, 이승훈, 임창식, 임정빈)
- 북한 언론매체와 무역자료 분석을 통한 남북 농업협력 유망 분야 및 품목 발굴(2022, 통일인문학, 임창식, 김미화, 임정빈)
- Forecasting Crop Production under High-Dimensional, Low-Sample Size Constraints Using Regularization: Rice Production in North Korea(R&R, European Journal of Agronomy, 임창식, 문용식, 유도일, 임정빈)
- Institutional Divergence and Heterogeneous Climate Change Impacts: Rice Production in North and South Korea(Under Review, World Development Perspectives, 임창식, 문용식, 임정빈)

□ 국내 학술발표 3건 및 국제 학술발표 3건

- 북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사업이 북한 쌀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분석(2018년, 한국농촌계획학회, 장도환 외)
- 북한의 농산물 무역 및 매체동향 분석을 통한 남북협력유망품목 발굴에 대한 연구(2021년, 한국경제학회, 장도환 외)
- 2021년 7월 1일 한국농업경제학회 연례학술대회(진도): 북한의 대중매체를 통한 북한경제 추정은 타당한가
- 2023.12.10. 일본 농촌계획학회 “農村計画学会2023年度秋期大会”(임창식, 김미화, 임정빈): The Ripple Effects of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on North Korea's Economy
- 2024. 7.29. 미국 농업경제학회 2024 AAEA annual meeting(임창식, 김미화, 임정빈): Economic Impact of the Suspension of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2025. 7.28. 미국 농업경제학회 2025 AAEA annual meeting(임창식, 문용식, 임정빈):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Rice Production in North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with South Korea

3 주요 연구성과: 학술적 성과

□ 학술포럼/세미나 개최를 통한 북한 농업·농정 분야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최지영 박사(통일연구원) : 북한 산업연관표 추정 및 활용
- 김다울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위성데이터를 활용한 북한연구
- 김근우 박사(농협경제연구원) : 국제규범과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농업협력 담론
- 김혁 박사(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북한의 농업농촌 환경과 생산실태
- 김동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정은 체제의 북한경제실태와 농축산 전망
- 조충희 박사(굿파머스) : 북한의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 통일·평화 기반구축사업 연구결과 기반 외부 연구과제 수주

- (농촌진흥청 R&D, 2020-2023) 채소·조사료 연계 유망 농업 기술협력 작물발굴 및 경제효과 분석
- (농촌진흥청 R&D, 2018-2022) 논 경지이용을 제고 발작물 중심 다모작 재배기술 개발
- (한국농어촌공사, 2018) 북한의 농업인프라 구축에 따른 남북경제 효과분석

3 주요 연구성과: 정책적 성과

□ 남북 농업협력 방향 제시

- 협력 가능 분야와 유망 품목을 도출하고 단계별 협력 방향을 제시
- 남북 농업협력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적 우선순위 검토에 기여
- 실질적 협력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통일 대비 농업 부문 정책 논의 기반 마련에 기여

- 통일 대비 농업 부문 준비를 위한 정책 논의 기반을 제공
- 농업 부문 동질성 회복과 협력 과제 발굴에 기여 : 인도적 지원 + 상호경제협력
- 중장기 농업협력 로드맵 검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

□ 북한 농업·농정 관련 핵심 지식·인적 자산 형성에 기여

- 학술성과의 정책 연계 가능성을 높이고 연구-정책 간 소통 기반을 강화

세계인이 찾아오는 창의, 혁신, 공감의 농업생명과학대학(CALS)

12

3 주요 연구성과: 학제간 연구 기반 구축

□ 학제간 연구 활성화, 지속적 융합 연구기반 구축

임정빈 교수

농경제사회학부



- 경제성 분석
- 정책 평가
- 남북 농업 유망분야 발굴 총괄.

최진용 교수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농어촌융수ICT융합
- 관개배수 등 하드웨어적 농업
- 수자원 인프라 분석

류영렬 교수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생태기후학
- 원격탐사
- 위성영상활용
- 북한작물생산성및식생·탄소순환추정

박록진 교수

지구환경과학부



- 대기화학
- 대기오염 및 기후 모델링
- 한반도 기후 변화 시나리오 고도화

□ 차세대 북한 농업과 농정 연구자 양성

- 박사과정 4명 참여(장도환, 이승훈, 임창식, 문용식)
- 석사과정 3명 참여(최현동, 이세연, 박지민)

13



4
통일·평화 기반구축사업의 의의와 한계, 제언: 사업의 의의

<div style="background-color: #00808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안정적 연구 기반 제공</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지속적 연구 수행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북한 연구의 단절을 완화하고 연구의 연속성 확보에 기여 ▶ 중장기 관점에서 체계적인 연구 축적 가능 	<div style="background-color: #00808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북한 농업 연구의 지식·인적기반 축적에 기여</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구조, 농정 변화, 식량 문제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지속적 분석 수행 ▶ 단편적 연구를 넘어 누적형 지식 축적 기반 형성 ▶ 북한 농업에 대한 종합적 이해 수준 제고
<div style="background-color: #00808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연구성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제고</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농업협력 및 통일 대비 정책 논의에 활용 가능한 연구성과 축적 ▶ 정책 검토 및 협력 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공공 기관 정책 연구과제 수주에 기여 	<div style="background-color: #00808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학제 간 연구 및 융합연구 생태계 구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인문사회 융합 연구를 통한 분석 범위 확대 ▶ 다양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한 협력 연구 기반 형성 ▶ 차세대 연구자 양성과 연구 네트워크 구축

세계인이 맞이하는 창의, 혁신, 공감의 농업생명과학대학(CALS)
15

4 통일·평화 기반구축사업의 의의와 한계, 제언: 북한연구의 한계

자료 접근 및 신뢰성 제약

- ▶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현장 조사 및 1차 자료 확보가 제한적
- ▶ 공식 통계의 신뢰성 검증 어려움 및 정보 비대칭 존재
- ▶ 간접 자료 의존에 따른 분석의 불확실성 존재

연구 환경의 외생적 변동성

- ▶ 남북관계 및 국제 정치·외교 상황에 따라 연구 환경이 크게 영향 받음
- ▶ 협력사업 중단 시 연구 연계성과 지속성 약화
- ▶ 장기 연구임에도 외부환경 의존성이 높은 구조

연구성과의 정책 연계 한계

- ▶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충분히 체계화되지 못함
- ▶ 정책 수요자와의 연계 부족으로 활용도 제약
- ▶ 학술 연구 중심으로 머물 가능성

학제간 융복합 연구 및 국제 협력 기반의 제한

- ▶ 학제간 융복합 연구가 제한적
- ▶ 데이터 및 연구성과 공유 체계 미흡
- ▶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부족

세계인이 찾아오는 참의, 혁신, 공감의 농업생명과학대학(CALS)

16

4 통일·평화 기반구축사업: 새로운 20년을 위한 제언

해외 연구협력 확대 방안 모색

- ▶ 북한문제의 국제적 성격에 비해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제한적
- ▶ 향후 연변대, 인민대 등 대학, FAO, UNDP, WFP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 심포지엄, 세미나, 공동연구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연구의 확장성과 대외 협력 기반을 제고

학제간 융복합 연구 활성화

- ▶ 북한 연구의 학술적, 정책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제 간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 필요
- ▶ 2개 계열 이상, 3개 학과(부) 이상이 참여하는 연구에 대해 추가 연구비 지원과 선정평가 가산점 부여하고, 학제 간 융복합 연구 기반을 강화

전체 및 과제당 연구사업비 규모 증대 노력

- ▶ 연구 참여 기반이 확대된 현 시점에서는 전체 사업 규모(총액)를 확대하여 과제당 연구비 규모도 확대 필요
- ▶ 이를 통해 심층적이고 완성도 높은 연구 수행과 연구성과의 통일·평화 정책 활용 가능성을 제고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제2세션>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 성찰과 전망

한반도 에너지와 자원의 미래지향적 협력

발표 박형동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한반도 에너지와 자원의 미래 지향적 협력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박형동 교수

hpark@snu.ac.kr

초록

북한은 다양한 금속 및 비금속 광물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까지 약 220종 이상의 광물이 부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경제적 채산성이 확보된 유용광물은 약 43종 내외로, 상당한 매장량과 자원량을 기반으로 광업 부문은 북한 경제에서 외화 획득과 산업 기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투자 부족과 기술 정체로 인해 채광-선광-제련 공정 전반의 생산성이 저하되어 있으며, 전력 공급 불안정 등 에너지 인프라 취약성이 자원개발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물자원의 잠재적 경제가치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자본, 기술, 인력의 체계적 투입이 이루어질 경우, 광업 부문은 남북 간 산업협력 및 자원개발 협력의 핵심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광산 개발과 연계된 전력망, 수송 인프라 및 물류체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지역 개발과 산업 연계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경제 재건과 구조 고도화 뿐 아니라 한반도 자원-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위성영상과 GIS 기반 공간분석을 활용하여 주요 광산 지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노천광산의 운반 경로 최적화 분석을 통해 교통 인프라 구축 전략을 도출하고, 태양광 발전 잠재량 평가를 기반으로 분산형 전력 공급 모델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폐광산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 기술 적용 가능성도 검토되었다. 향후에는 광체 품위 및 매장량에 대한 정밀 탐사자료 확보와 3차원 지질모델링이 요구되며, 에너지 신산업 도입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및 시스템 시뮬레이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위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자원개발의 불확실성을 저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의 광업 현황

- 현재 북한에는 약 700개의 광산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금속광 306개, 비금속광 229개, 석탄광 259개 등 총 794개의 광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매장량 및 생산량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광산으로 한정할 경우, 금속광 78개, 비금속광 14개, 석탄광 20개로 총 112개의 주요광산이 존재
- 최근 생산설비 및 채광설비의 노후화, 광맥의 심부화로 인하여 대규모 채광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채광이 용이한 중소규모 광산위주로 신규 개발 진행



북한 광종별 광산 분포도

<임상철,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과 남북교류 가능성, 2014>

<I-RENK 북한지하자원넷, 북한 광산 분포도>

3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 - 금속

북한의 주요 금속광물자원 매장량

구분	광종	조선중앙연감		북한자원연구소		단위
		매장량	기준품위	매장량	기준품위	
금속	금	2,000.0	금속기준	698.0	금속기준	톤
	은	5,000.0	금속기준	6,356.0	금속기준	
	동	2,900.0	금속기준	4,235.0	금속기준	
	연	10,600.0	금속기준	9,988.0	금속기준	천톤
	아연	21,100.0	금속기준	27,425.0	금속기준	
	철	50.0	Fe 50%	24.7	Fe 63.5%	억톤
	증석	246.0	WO3 65%	146.0	WO3 65%	
	몰리브덴	54.0	MoS2 90%	18.7	금속기준	
	망간	300.0	Mn 40%	2,989.0	금속기준	
니켈	36.0	금속기준	147.6	금속기준		

<I-RENK 북한지하자원넷,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
<통계청 북한통계,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광업 및 제조업>
<USGS, 2016 Minerals Yearbook: North Korea>

4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 - 비금속, 석탄

북한의 주요 비금속 광물자원 및 석탄 매장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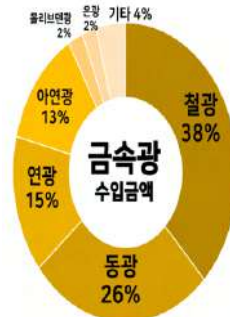
구분	광종	조선중앙연감		북한자원연구소		단위
		매장량	기준품위	매장량	기준품위	
비금속	인상흑연	2,000.0	FC 100%	14,596.0	FC 95%	천톤
	석회석	1,000.0	각급	44.0	광석기준	억톤
	고령토	2,000.0	각급	89,139.0	광석기준	천톤
	활석	700.0	각급	25,230.0	광석기준	
	형석	500.0	각급	5,350.0	광석기준	
	증정석	2,100.0	각급	15,397.0	광석기준	
	인회석	1.5	각급	250.7	P2O5 30%	억톤
	마그네사이트	60.0	MgO 45%	70.0	광석기준	
석탄	무연탄	45.0	각급	41.0	각급	억톤
	갈탄	160.0	각급	179.0	각급	

<I-RENK 북한지하자원넷,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
 <통계청 북한통계,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광업 및 제조업>

연구 사례

연구 대상 광종 - 구리(동)

- 본 연구소에서는 앞서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철, 아연 광산에 대한 분석 수행
- 구리(동)의 국내 소비량과 수입량은 철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중요한 광물임.
- 구리는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이 높고 합금, 성형 등의 가공이 용이
- 전기 및 전자제품의 전선으로 주로 활용
-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 → 칠레, 캐나다, 인도네시아, 페루 등
- 구리는 가격변동이 심한 광물 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전기차/신재생에너지의 소비 확대로 국제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구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지난 3년간 국제 동 가격 추이 (USD/ton)



연구대상광산 - 해산청년광산

- 북한의 동광물은 양강도 해산시로부터 함경남도 리원시까지 북북서향으로 긴 벨트 모양으로 분포 (해산광산, 운흥광산, 갑산광산 등)
- 해산청년광산은 이 중 가장 규모가 크며, 구리와 금, 연, 아연을 채취하는 지하광산
- 1930년대 일제가 석탄채굴을 시작한 이래 1973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어 1978년부터 대대적으로 구리를 생산
- 1993년 압록강, 허천강의 물이 광산 내로 침투해 광산이 침수되면서 광석생산이 중단되었음. 그 후 2003년부터 중국의 원조로 침수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북중합작 기업인 해중광업합영회사가 운영.



7

- ✓ 해산광산을 비롯한 북한의 광산 개발 시 GIS를 이용한 개략적인 재해예측 및 위험도 평가 가능
 - 빈도비분석을 통한 사면 안정성 평가 결과, 광산 주변에는 전반적으로 사면이 불안정한 지역은 없었지만, 서쪽 사면의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성이 있음.
 - 고도와 수계 자료를 이용한 수심 상승 시의 침수 지역 분석과 강우 시의 누적흐름분석을 이용한 홍수위험지역 평가 결과, 광산 주변의 해산시 도심 지역에서 홍수 가능성이 높음
 - 과거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광산이기 때문에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 필요
- ✓ 전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도입을 위한 설치부지 평가 수행
 - 일사량 기상 자료와 그림자 분석, 경사도, 지질 재해 위험성, 이격 거리, 토지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를 평가
 - 광산 내 3km 이내 지역에 대해 태양광 발전부지 면적이 가장 넓은 구역 5곳을 선택
 - 가장 넓은 부지의 경우 광산의 예상 수요전력의 86.5%에 해당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신뢰도 높고 정밀한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광물자원 평가의 불확실성

▲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

-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에 대한 추정치는 조사기관 (조선중앙연감, 북한자원연구소) 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나, 대체적으로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광물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북한 금속광물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금속광물 매장량이 남한에 비해 풍부한 것으로 추정
- 특히 남한 금속광물 수입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철·동·연광의 경우, 북한의 매장량이 남한의 10~10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개발 잠재성이 높다고 판단 가능
- 비금속광물의 경우 조사기관별로 매장량 추정치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고령토를 제외한 주요 비금속광물의 매장량은 대체적으로 남한 매장량과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으로 추정
- 석탄의 경우 북한의 매장량 (약 205~220억 톤) 이 남한 (약 13.3억 톤) 에 비해 약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평가의 한계

-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추정치의 경우, 북한의 폐쇄적인 경제체제 및 낙후된 기술력으로 인해 신뢰성 있는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 데이터를 획득하기 어려우며, 북한의 대외 광물자원 수급동향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
- 추정된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역시 북한의 가용 인프라와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성 있는 채광이 가능한 광종 별 가채매장량 계산이 필요

<정우진, 북한의 광물자원산업 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2019>

9

북한의 광업분야 역량 분석

▲ 북한의 광업분야 역량 분석 - 광산 운영 현황

분류	근로자수(명)	주요 광산
연합1급	37,000	무산
연합2급	23,000	검덕
연합3급	10,000	상능
종합기업소	10,000	단천, 대흥
특급	8,000 - 10,000	룡양, 혜산
1급	5,000 - 8,000	운산, 수안, 홀동, 은률, 허천
2급	1,000 - 5,000	재령, 고산, 동창
3급	300 - 1,000	금바위, 락산, 대락, 등광
4급	100 - 300	정촌
5급	50 - 100	
6급	10 - 50	

북한의 광산 분류현황 및 각 광산 분류에 따른 근로자 수 비교

<방경진, 북한 광물자원과 남북 경제 공동번영의 길, 2018>
 <한국광물자원공사, 북한 광물자원 개발현황, 2011>

10

북한의 광업분야 역량 분석 - 광업 연구 현황

- 북한의 주요 광업 학술지 3종(채굴공학·지질 및 지리과학·기술혁신)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논문 게재 현황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2008 - 2017년 기간 동안 북한의 광업 분야 연구추이를 분석
- 문헌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총 794편의 광업 연구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게재된 논문의 연구 분야를 연도별로 분류하여 그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3-2014년을 기준으로 하여 광업 연구동향의 변동을 관측

학술지	수록 논문 연구분야 분류								총합
	채광	발파	장비	지보	선광	암반	탐사	기타	
채굴공학	61	51	47	35	5	62	25	38	324
지질 및 지리과학	1	0	7	0	1	21	67	43	140
기술혁신	64	67	46	34	16	19	6	78	330
총합	126	118	100	69	22	102	98	159	794

2008 - 2017년 북한 주요 광업 학술지 수록 논문 연구분야 비중 분석

<강일석, 북한의 광업 및 암반공학 분야 최신 연구동향 분석, 2020>

11

북한의 광업분야 역량 분석 - 종합

- 북한의 총 광업 종사자 수는 대외 공개자료에 따르면 약 109만 명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남한의 총 광업 종사자 수 7,210명과 비교할 때 약 150배 이상의 매우 큰 규모
- 가행 광산 수(364개(남), 700여개(북)) 및 광업 경제규모(2조 2,620억 원(남), 4조 2,660억 원(북)) 측면에서 약 2배의 차이를 보이는 남북한 광업 현황을 고려할 때, 남북한 광업 종사자 수의 차이는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에서 인력 중심의 재래식 채광법이 주로 활용됨을 시사
- 북한의 광업 연구 경향의 경우 2012년 이전에서는 기존 광산의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재래식 채광·탐사 기법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2013년 이후부터는 신규 광맥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해 수치해석기법·자동화 설계기법의 활용을 목표로 하는 등, 북한의 과학기술에 의한 지식경제 육성·국가노선에 따른 자동화·첨단화 추세를 관측
- 이와 같은 북한 광업의 기술·경제적 현황과, 채광환경이 열악한 석탄을 주요 생산물로 하는 북한 광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 집약적인 채광법을 활용하는 북한 광산 현장의 안전 및 광해 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북한 역시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광산 현장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분석

<이춘근,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2015>

<이인우, 북한의 광물자원 통계, 2017>

<통계청,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8>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 북한투자전략보고서 2019-I, 2019>

12

▲ 북한의 광업체계 분석 - 광물자원 매장량

- 남한의 광물자원 매장량 산출기준은 '광업법 제15조' 및 '한국공업규격(KSE)'에 따른 광량계산 기준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지질학적 매장기준 및 기술경제적 평가결과에 따라 매장·가채광량, 확정·추정광량으로 분류기준 명시
- 북한의 공식적인 광물자원 매장량 산출기준은 구 소련(동구권) 방식인 탐사광량(A,B,C₁), 추정광량(C₂), 미확정광량(P₁,P₂,P₃)으로 평가 신뢰도에 따라 분류
- 하지만 북한은 매장량 산출 시 '지하자원법 제3조'에 근거하여,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아닌 **부존광량의 고갈을 목표로** 하며, 이 때 북한이 의미하는 매장량은 A - C₂에 이르는 매장량을 의미

구분	매장량	광량산출 기준	비고	
남한	확정매장량	광체 2~4면 확인, 각 면의 시료도 완성, 가채율 90%		
	추정매장량	광체 1면 ↑(규칙광상), 2면 ↑(불규칙광상) 확인, 가채율 70%		
	예상매장량	광체 1면 ↑(규칙광상), 2면 ↑(불규칙광상) 확인, 가채율 36%		
북한	확보매장량	A	수평50m, 상하50m 격자 탐광굴진 확인 경내: 중단경도 개설 노천: C1에서 표토, 폐석 제거 광량	개발
		B	수평100m, 상하50m 격자 탐광굴진 확인 통상시추와 별개로 탐광 실시	
	C ₁	수평100m, 상하100m 격자 시추를 통해 광량 확인	미개발	
	전망매장량	C ₂	C1 주변부 및 노두 등 50m 간격 확인 200m 격자 시추를 통해 개략적 파악	미탐사
		C ₃	노두조사로 확인, 심도는 지표확인연장의 1/2 인정	예상
		P ₁	광맥 폭과 연장이 간헐적으로 파악	전망
P ₂		광역지질조사로 광맥 폭과 연장이 파악	전망	

남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 분류 기준

< 방경진, 북한 광물자원과 남북 경제 공동번영의 길, 2018 >
 < 최종문, 국제기준에서 바라본 북한 광물자원 평가와 개발환경, 2018 >
 < 최용근, 국내 광량 평가 기준에 대한 고찰, 2019 >

▲ 북한의 광업법 분석 - 매장량 산출

- 북한의 국가 주도적인 광물자원 소유권 인식으로 인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경제성에 따른 가채매장량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국가 심의기관에 의해 인정된 산출 매장량 전체를 채광**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

(북한) 지하자원법
<p>제15조 지하자원 매장량 계산기준은 국가 지하자원 개발 심의기관이 정한다. 제16조 계산된 지하자원 매장량의 심의는 해당 중앙기관과 국가 지하자원 개발심의회가 한다. 제25조 지하자원 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채굴기준과 지하자원 매장량 계산기준이 되는 광체를 다 캐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체만을 골라 캐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 위 지하자원법 조항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성에 입각한 경제성 평가기준을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적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실제 채광 진행 시 **사업계획에 비해 품위 및 채굴조건이 악화**되어 사업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위 지하자원법 조항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 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채광계획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

< 북한자원연구소, 북한 지하자원개발 법제 연구, 2013 >
 < 최종문, 국제기준에서 바라본 북한 광물자원 평가와 개발환경, 2018 >

▲ 북한의 광업법 분석 - 광산안전 및 광해방지

- 북한 '지하자원법' 조항을 통해 광산 내 노동안전 및 환경보호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남한 광업법의 유사 조항에 비해 구체적인 실행조건 등이 미흡한 측면 존재

(남한) 광업법(광산보안법)	(북한) 지하자원법
<p>광산보안법제5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1.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① 낙반, 붕괴, 용수, ... ② 가스, 먼지, 소음, ... ③ 기계, 기구, 화약류, ... ④ 광업시설의 보전 ⑤ 구조조작의 설치, ... ⑥ 지하자원의 보호 ⑦ 광해의 방지와 그 밖의 보안, ...</p>	<p>제28조 지하자원 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기술규정과 노동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켜 사고와 자연피해를 막아야 한다.</p> <p>제31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 개발 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p>

- 광산 출신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북한 광산현장에서는 생산목표 우선주의와 열악한 현장조건으로 인해 광산안전 및 광해방지는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위성영상을 통한 광해발생 분석 결과 무산·검덕·홀등 등 북한의 주요 광산에서 하천오염·토양오염·지반침하 등의 사례가 다수 관측

<북한자원연구소, 북한 지하자원개발 법제 연구, 2013>
<최종문, 국제기준에서 바라본 북한 광물자원 평가와 개발환경, 2018>
<조정구, 북한의 광산지역 환경피해 분석과 복구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18>
<윤성문, 위성사진을 활용한 북한 지역 광산의 광해 현황 연구, 2018>

15

▲ 남북한 광산기술인력 교육 현황 비교

- 남한의 광산기술인력 교육 과정은 대체로 각 대학에 설치된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육과정을 통한 소수의 고급인력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광물자원의 개발 및 생산 전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을 구축
- 일반 광산근로자의 경우 개별 광산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광업 근로여건의 악화로 인한 광산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인력수급 지원방안이 검토되기도 하는 실정
- 북한의 광산기술인력 교육은 내각 직속 국가과학원이 연구목표를 수립하여 하부 연구소 및 교육기관으로 하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은 다시 일반 주간대학과 광산 내 통신대학 및 공장대학, 기능공학교 등으로 세분화되어 광업인력 양성 수행
- 하지만 체계적으로 구성된 북한의 광산인력 교육체계에도 불구하고, 성과위주의 광산 운영 및 열악한 현장 조건으로 인해 이와 같은 교육의 성과가 효과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하는 추세이며, 특히 일반 광산근로자로 고등중학교 졸업생 및 제대군인 등 비숙련 노동력을 활용한 재래식 채광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

<조정구, 북한의 광산지역 환경피해 분석과 복구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18>
<산업통상자원부, 제 3차 광업 기본계획 (2020-2029), 2020>

16

연구 사례: 통포광산 재해 위험성 및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평가

통포광산 개발 현황 및 연구 필요성

- 평안북도 정주시 룡포리 소재
- 북한 희토류 매장량은 2000 만톤으로 추정 세계 전체 점유율 17% (4위로 추정), 생산실적 비공개
- 서해안 인근에 있어 남북 교류협력에 유리한 위치
- 현재 남한 수입 현황은 2014년 이후 남한의 희토류 수입량은 증가하나 수입단가는 2011년에 정점 기록 후 하락



<북한정보포털> <북한지하자원넷> <한국광물자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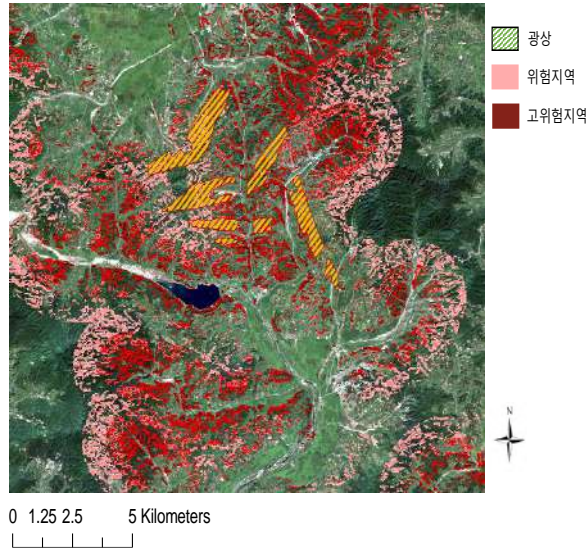
통포광산 자원 분포



<강만식 외, 조선지질총서(7), 2011; 고상모 외, 한반도 북부의 지질과 광화작용, 2019에서 재인용>

산사태 위험 지역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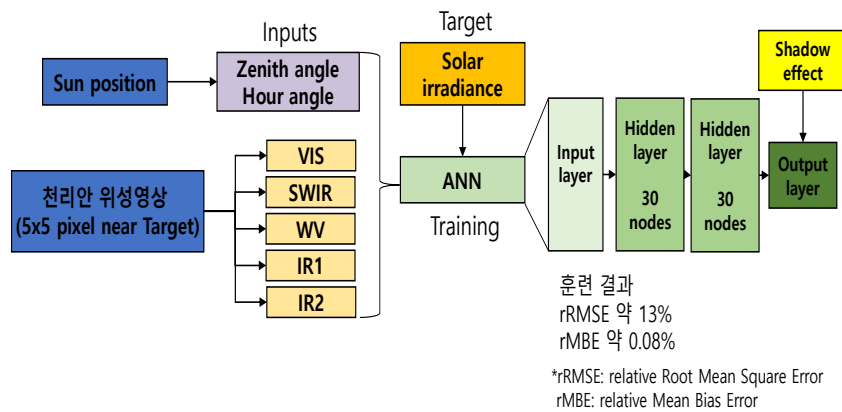
● 결과 (광산 인근 15km * 15km지역)



태양광 에너지 잠재량 평가

●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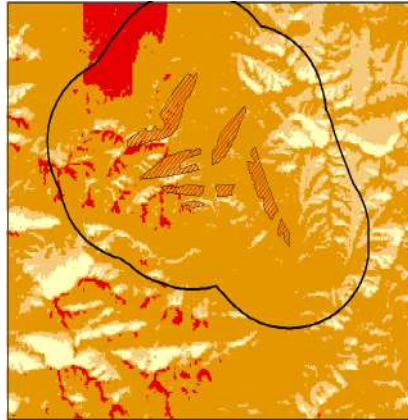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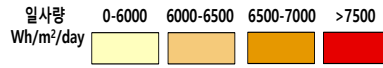
- 북한 지역은 한국에 비해 기상관측소가 적으며 일사량 측정은 이뤄지고 있지 않음
- 2016-2017년 한국의 일사량 관측값과 위성영상을 이용해 인공신경망을 구축, 북한 지역 일사량을 예측함
- 예측된 북한 일사량을 이용해 분석 광산 반경 3 km 내 지역의 태양광 에너지 잠재량 평가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 평가

▲ 적정부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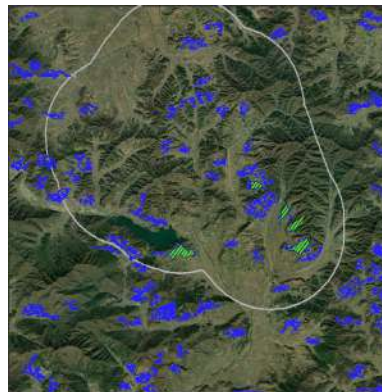
● 결과 (광산 반경 3 km 내 일사량)



0 1.25 2.5 5 Kilometers

▲ 적정 부지 선정

- 재해 위험 지역을 배제한 후 경사도와 경사방향 조건을 만족하는 부지를 중첩
- 패널 설치 적합 지역 중 농경지, 주거지역, 산림 지역을 제외
- 10 ha 이상의 면적을 갖는 지역만 추출하여 태양광 패널 설치 부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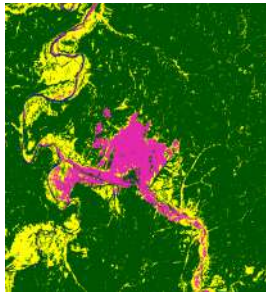


- 패널 설치 적합 지역
- 최종 선정된 적지 5개 지역

0 1.25 2.5 5 Kilome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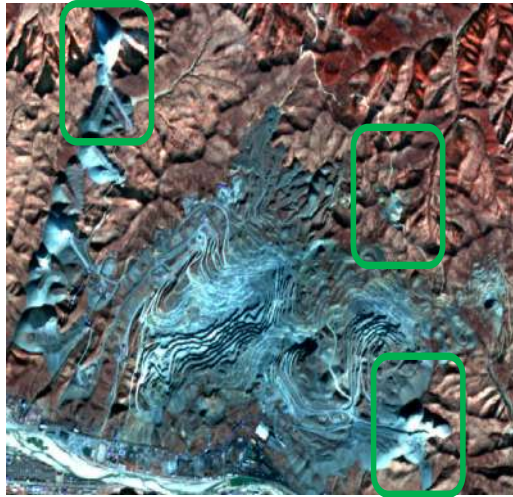
▲ 위성영상 분석을 통한 광산개발현황 파악

- 고해상도(20m)의 Sentinel-2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피복분류 및 광미적치장 위치 파악



<피복분류 결과>

- 광산, 도로
- 산림
- 농경지



<Sentinel-2 위성영상을 이용한 광미적치장 파악>

협력 방안: 수력/폐광산의 평화적 활용 / 에너지 저장

연구 사례: 기후 독립적 수력 · 양수발전의 북한 도입 가능성 연구

▲ 북한 수력 발전의 기후 취약성: 노후화 · 소수력

- 북한의 수력발전 설비는 일제강점기 이후 소련, 러시아, 중국 등 공산권의 지원으로 확충된 설비의 비중이 높으며, 공산권 붕괴 과정 및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해당 설비들의 노후화 문제가 가속화
- 2021년 기준 가동 연수가 20년을 초과한 노후 수력발전 설비의 비중은 발전용량 기준 약 80%에 달하고 있으며, 해당 설비들의 경우 대부분 공산권의 설계 표준에 따라 제작되어 현재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
- 수력발전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가뭄이나 결빙 등 기후여건으로 인한 발전소 가동 정지 문제가 빈번하고 치명적으로 작용
- 또한, 북한 송배전설비의 노후화 및 낙후된 운영방식, 배전선로의 과부하 및 유실 문제로 인해 송배전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률은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남한 손실률 약 4.5%)

노후도 및 가동 연수에 따른 북한 수력발전 설비 발전용량 비율 (박용성 외, 2022)

노후도	가동 연수	준공 시기	용량(MW)	비율(%)
최상	50년 이상	~1969	2045	30.7
상	30~49년	1970~1989	2692	40.4
중	20~29년	1990~1999	535	8.0
하	~19년	2000~	1398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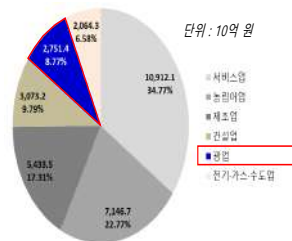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전력 공급현황 및 특징, Accessed on 2022.11.03.>
 <박용성 외, 북한 해양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전략 제안, 2022>
 <제7차 전기산업 통일연구 협의회, 북한의 전력수급과 배전계통 현황, 201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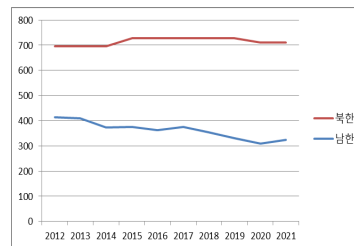
연구 사례: 폐광산의 광해 방지 및 에너지 저장

▲ 북한 내 폐광산 현황 및 광해 심각성

- 광업은 2022년 기준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의 약 8.8% (약 2조 7,514억 원) 를 차지하는 북한의 주요 산업 분야
- 최근의 북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 가행광산의 수는 2021년 기준 총 710개소로 분석됨. 이는 동일 년도 남한 내의 가행광산 (325개소) 현황과 비교할 때 약 2.2배에 달하는 수준
- 또한 북한 내 광업 종사자의 수는 2016년 기준 약 1,093,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동시기 남한 약 7,221명). 이와 같은 다수의 광업 종사자 수는, 북한 광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
- 2021년 5~9월 실시된 제 4차 광해실태조사 에 따르면, 남한 내 휴폐광산 5,475개소 중 3,300개소에서 광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 북한의 경우 경제난으로 인한 광해방지 조치 미비와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에 따른 광산지역 인 구 집중으로 인해, 남한에 비해 광해의 발생 빈도 및 심각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 중 광업 비중 (2022년)



2012-2021년 남북한 가행광산 수

<국가통계포털, '북한통계 - 경제활동별 실질 국내총생산, 주요 광종 광산 수', 2023.10.19 접속>
 <방경진, 2018, 북한 광물자원과 남북 경제 공동번영의 길, 삼학프린트>
 <에너지플랫폼뉴스, '정부, 2026년까지 휴, 폐광산 광해복구를 30% 목표', 2022.02.13>

26

중력에너지 저장 시설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분석

▲ 동남광산 (자강도 자강군)

●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잠재력과 MGES를 통한 장기 에너지 저장 가능성의 조합 예시



- 풍력 발전
- 태양광 발전
- 동남광산

	Specifications	Long term energy (MWh)
GES	Height: 66 m	6.1
	Mass: 50,000 ton	
Wind	Area: 0.3 km ²	212
	Windspeed: 1.4 m/s	
Solar	Area: 0.013 km ²	18.7
	kWh/m ² /year: 6.22	
	Area: 0.007 km ²	10.7
	kWh/m ² /year: 6.26	
	Area: 0.005km ²	7.6
	kWh/m ² /year: 5.93	
	Area: 0.005 km ²	7.4
	kWh/m ² /year: 5.75	

27

결론 및 제언

- 광체 품위 및 매장량에 대한 정밀 탐사자료 확보와 3차원 지질모델링
- 에너지 신산업 도입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및 시스템 시뮬레이션 연구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위험에 대한 정량적 분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제2세션>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 성찰과 전망

탈북작가 장편소설: 인간모독소·약산의 진달래·철과 흙

발표 방민호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탈북작가 장편소설 『인간모독소』·『약산의 진달래』·『철과 흙』

방민호(서울대 국문과 교수)

1. 들어가며 - 탈북문학을 둘러싼 개념들

“탈북문학”은 한국현대문학에 고유한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고유한 문학 범주로 설정하는 일은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다.

영어로는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문학이라는 의미에서 North Korean defector literature라고 직접 번역할 수 있다. 이는 “탈북자(defector)”라는 정체성을 전면에 드러내는 번역어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Literature by North Korean defectors라는 방식으로, 작품의 성격보다 저자의 주제적 위치를 강조할 수도 있다. 정치적 의미를 보다 부각할 경우에는 망명과 이동의 의미를 강조한 North Korean exile literature라는 번역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정치적·정서적 층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유효하지만, ‘탈북’의 의미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한 집단적 이산의 경험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는 North Korean diaspora literature라는 개념도 활용 가능하다. 체제 비판적 맥락을 전면화할 경우에는 North Korean dissident literature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탈북문학의 반체제성과 정치적 저항성을 강조하는 데 유용하다.

이처럼 탈북문학은 여러 문학적 개념들과 공통 기반을 형성한다. 우선 그것은 디아스포라 문학(diaspora literature)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다. 디아스포라 문학이란 본래의 고향이나 조국을 떠나 타지에 살게 된 이들이 겪는 이주, 망명, 분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학을 뜻한다.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말은 원래 유대인의 ‘흩어짐’을 가리키던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이주, 망명, 이산 공동체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문학은 흩어진 사람들의 삶과 정체성을 다루는 문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문학은 정체성의 분열과 혼종성을 핵심적으로 드러낸다. “나는 어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중심을 이루며, 이중 정체성 혹은 혼종적 정체성(hybrid identity)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또한 고향에 대한 기억과 상실, 노스탤지어(nostalgia), 상실감, 귀환 욕망 등이 핵심 정서를 형성한다. 더 나아가 언어와 문화의 경계 경험, 두 개 이상의 언어·문화 사이에서의 갈등, 주변성과 타자성의 체험, 이주 공간에서의 삶의 문제 등도 주요한 서사적 요소가 된다.

탈북문학은 반체제문학의 범주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반체제문학(dissident literature 또는 anti-establishment literature)은 정치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체제를 비판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문학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단순한 비판적 문학보다 훨씬 강한 함의를 지닌다. 반체제문학은 국가 권력, 식민 권력, 자본주의 체제, 당-국가 체제 등 지배적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이며, 지배 이데올로기의 해체, 억압된 주체의 목소리 복원, 검열과 금지 상황 속에서의 발화를 지향한다. 그것은 체제 내부의 점진적 비판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문제 삼는 문학이다. 역사적으로는 소비에트 및 동유럽의 사미즈다트(samizdat) 문학,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으로 대표되는 문학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군사독재 체제에 대한 은유

적·마술적 비판을 수행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작품들 역시 넓은 의미의 반체제문학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70~80년대 민중문학의 군사정권 비판과 노동·민중 현실 폭로 역시 이에 해당한다. 탈북문학은 이러한 반체제문학의 계보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탈북문학은 또한 난민문학(refugee literature)의 관점에서도 읽힐 수 있다. 난민문학은 단순히 난민이 쓴 문학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의미를 갖는 개념이다. 그것은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 이동(displacement)의 경험을 형상화한다. 전쟁, 정치적 억압, 체제 폭력으로 인한 이동, 자발적 이주가 아닌 탈출(escape)의 경험이 그 핵심을 이룬다. 또한 난민문학은 법적·정치적 경계 상태(liminal legal status)에 놓인 인물들을 형상화한다. 국적이거나 시민권의 보호가 불안정한 존재, 인간이지만 시민이 아닌 상태에 놓인 존재들이 여기서 주요한 서사적 주체가 된다. 아울러 난민문학은 증언성과 서사성의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그것은 경험을 증언(testimony)하면서 기억, 트라우마, 폭력의 기록을 재현하고, 불안, 공포, 상실, 귀환 불가능성과 같은 고통의 경험을 서사화한다. 따라서 난민문학은 ‘추방된’ 주체의 존재론적 상태를 재현하는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난민문학의 이론적 이해를 위해서는 조르조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bare life) 개념이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난민은 법 바깥에 놓인 존재이며, 정치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인간이고, 예외 상태(state of exception)에 놓인 인간이다. 탈북민은 국가의 온전한 보호 바깥에서 생존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러한 개념에 근접한다.

탈북문학은 저항문학(resistance literature)의 맥락에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탈북문학을 단순히 북한 체제 비판의 문학으로 환원하지 않고, 권력, 담론, 주체 형성의 관계 속에서 재배치하는 시도이다. 일반적으로 저항문학은 국가, 이데올로기, 식민 권력 등 지배적 권력에 맞서 억압된 주체의 경험, 기억, 언어를 통해 반대 담론(counter-discourse)을 생산하는 문학이다. 권력은 검열, 감시, 통제, 구속을 통해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고, 피지배자, 탈주자, 난민들은 증언과 기억을 통해 이에 저항한다. 따라서 저항문학은 단순한 문학적 재현을 넘어 정치적 실천(political practice)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미학보다 증언과 역사적 개입의 힘이 더 중요하게 논의되기도 하며, 그 힘 자체가 새로운 미학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탈북문학은 개인 체험의 기록처럼 보일 때에도 실제로는 북한 체제라는 권력 구조에 대한 집단적 증언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점에서 탈북문학은 진실을 가장하는 체제에 맞서 저항적 담론을 생산하는 문학이며, 증언문학과 저항문학의 교차 지점을 형성하는 문학이라 할 수 있다.

2. 김유경 장편소설 『인간모독소』

이제 주요한 탈북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문학계에는 여러 탈북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김유경, 김정애, 이지명, 도명학 등의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살펴볼 작품은 김유경의 『인간모독소』(카멜북스, 2016)다. 이 작품은 수용소 문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학은 인간 삶의 밝은 면보다 오히려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층위를 다룰 때 그 존재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다. 인간의 삶은 기쁨만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 불안과 상처의 차원 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탈북문학은 오늘의 한국문학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단순히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고발하기 때문이 아

나라, 현대가 감추고 있는 야만과 역설을 첨예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모독소』는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작품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현실 고발의 기록으로만 읽어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작품은 인간이 어디까지 파괴될 수 있는가, 국가 권력은 인간의 생명을 어디까지 통제하고 처분할 수 있는가,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대표적인 수용소 문학 및 그 담론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프리모 레비를 검토한 조르조 아감벤의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 등이 대표적이다. 아감벤은 프리모 레비를 논의하면서 아우슈비츠 이후의 현대가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어디까지 붕괴될 수 있는가를 묻게 되었다고 보았다. 『인간모독소』 역시 바로 그러한 계열의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한원호다. 그는 기자로서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인물이지만, 아버지가 남파간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스스로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오직 혈연과 이력 때문에 처벌된다. 아내와 어머니 역시 함께 끌려간다. 이 설정은 북한 체제의 연좌제가 얼마나 잔혹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죄는 개인의 행위에 귀속되지 않고 가족 전체로 확대되며, 심지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진다.

수용소에 들어간 이후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극도로 참혹하다. 거처는 반토굴에 가깝고, 음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노동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 이곳에서 노동은 더 이상 생산이나 자기실현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을 소모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고문에 가까운 것이 된다. 굶주림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먹을 것만을 쫓는 존재로 전락시킨다. 인간은 과거를 회상할 힘도, 미래를 구상할 힘도 잃은 채 오직 오늘 하루를 버티는 데 몰두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 『인간모독소』가 보여주는 수용소 인간은 더 이상 정치적 인간도, 사상적 인간도 아니다. 그들은 이념을 둘러싸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생존 본능만으로 연명하는 존재가 된다. 인간의 존엄, 기억, 자아의식, 미래를 향한 전망은 하나씩 지워진다. 이러한 대목에서 아감벤이 말한 ‘무젤만’을 연상할 수 있다. 즉, 살아 있으나 사실상 죽음에 가까운 존재, 인간의 최소 한계까지 추락한 존재다. 『인간모독소』의 인물들 역시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 존재들로 읽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아이들의 문제다. 원호와 아내 이수련 사이에서 태어난 선풍은 수용소 안에서 성장한다. 이 아이는 정상적인 의미의 유년기(childhood)를 거의 누리지 못한다. 그는 사랑과 보호 대신 감시와 폭력 속에서 성장하며, 수용소의 서열, 힘의 논리, 비굴함과 잔인함을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학습한다. 이는 단지 한 아이의 비극이 아니라, 수용소 체제가 인간 개체를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인간 형성 자체를 왜곡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용소는 인간을 가두는 공간인 동시에 비인간적 인간을 재생산하는 공간이다.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매우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이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독자에게 이 작품은 수용소가 어떤 공간이며, 그곳에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는지를 강하게 체감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모독소』는 탈북문학이 왜 중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작품은 일정한 한계도 노정한다. 후반부에 이르면 소설은 다소 멜로드

라마적 방향으로 전개된다. 원호, 수련, 그리고 보위부원 최민규 사이의 관계는 결국 한국에 와서 다시 이어지고, 갈등은 종교적 화해와 용서의 방향으로 수습된다. 이러한 설정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용소라는 극한의 폭력을 다루는 작품이 마지막에 비교적 상투적인 화해의 서사로 마무리될 때 독자는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수용소의 구조적 폭력과 역사적 상처를 끝까지 밀고 가기보다, 개인적 감정의 봉합으로 수렴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모독소』는 냉정하게 재독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분명 중요한 문제작이지만, 『수용소 군도』처럼 체제 전체를 끝까지 추적하고 해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다시 말해 강렬한 문제제기를 수행하면서도, 결말에서는 다소 완화된 서사로 물러선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은 분명한 성취와 동시에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또 하나 검토해야 할 점은 이 소설이 한국 사회를 비교적 안정되고 자애로운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한국 사회는 북한과 본질적으로 다른 체제이며, 훨씬 자유로운 사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곳을 완전히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다. 국가폭력, 제도적 억압, 생명의 처분 가능성이라는 문제는 남한 사회에서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모독소』를 읽을 때에는 북한을 절대적 야만, 남한을 절대적 문명으로 이분화하는 독법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 작품이 보여주는 북한 수용소의 극단성을 통해 현대 사회 일반이 인간 생명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함께 성찰해야 한다.

결국 『인간모독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드문 문제작이다. 이 작품은 연좌제, 굶주림, 강제노동, 폭력, 아이들의 왜곡된 성장 등을 통해 수용소가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동시에 수용소 문학이란 무엇인가, 증언과 소설은 어떻게 만나는가, 극한의 폭력을 문학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함께 제기한다. 다만 후반부의 화해와 구원의 서사는 작품의 비판적 긴장을 다소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북한 체제 비판의 텍스트이면서도, 더 넓게는 현대 권력과 인간성의 문제를 묻는 작품으로 읽혀야 한다.

3. 김정애 장편소설 『약산의 진달래』

다음으로 김정애의 장편소설 『약산의 진달래』(예옥, 2025)를 검토한다. 이 작품은 매우 문제적인 텍스트이다. 제목부터가 독자에게 익숙하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등장하는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이라는 구절은 한국인에게 널리 각인되어 있다. 약산은 평안북도 영변의 명승지이며,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김정애의 소설은 바로 그 아름다운 약산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 이면에 감춰진 참혹한 현실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시적 서정의 공간이 핵 개발과 방사능 피폭의 공간으로 전환된 비극을 형상화한다.

표면적으로 이 작품은 한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부로 들어가면 이는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니다. 북한의 핵 개발 뒤에 감춰진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떠안아야 했던 젊은 군인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다루는 작품이다. 더욱이 이 소설은 작가 자신의 실제 남동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은 허구이면서 동시에 증언이고, 소설이면서 동시에 고백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작품의 배경은 1992년 영변 핵시설 일대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이루어

지던 시기와 맞물린다. 북한은 핵 개발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각종 은폐와 조작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평범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국가의 거대한 비밀 속에 희생된다. 주인공 강호영은 청진 출신의 군인으로, 10년 동안 영변 핵시설을 지켜온 인물이다. 그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군에 들어간다. 북한 사회에서 출신성분, 곧 토대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호영은 월남자 가족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군 복무를 선택하고, 당원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은 출세의 통로가 아니라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된다.

상대역인 고은아는 영변 분강지구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다.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이 우연은 역설적이다. 북한 당국이 IAEA를 속이기 위해 방사능 흔적을 감추고, 주민들과 학생들까지 동원해 주변의 곤충과 식물들을 채집하게 하는 와중에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곧 사랑의 시작조차 국가 권력의 거짓과 은폐 속에서 형성된다. 이 작품은 이러한 설정을 통해 개인의 가장 순수한 감정조차도 체제의 폭력과 무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작가 김정애의 존재다. 김정애는 탈북 이전부터 북한에서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았고, 탈북 이후 한국에서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대표적 탈북작가다. 김정애 문학의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체제를 고발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 체제 안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감정, 상처, 체념, 사랑 등 복잡한 인간 현실을 함께 보여준다는 데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정치적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이다. 차갑게 고발하면서도 따뜻하게 인간을 바라보는 이중의 시선을 유지한다.

『약산의 진달래』의 가장 큰 비극은 영변 핵시설을 지키던 군인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어 하나둘씩 무너져 간다는 데 있다. 호영 역시 제대를 앞두고 있지만, 제대 이후에도 다시 핵시설 노무자로 재배치되어 사실상 평생 그곳에 묶일 위기에 처한다. 그는 아직 자신의 몸이 어떻게 망가져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독자는 이미 그의 몸속에 죽음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예감한다. 작품 속에서는 영변의 군인들이 마흔도 넘기지 못하고 스러져 간다는 말이 제시된다. 실제로 작가의 남동생 역시 영변에서 복무한 뒤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와 오래 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가 헐고, 고름이 흐르고, 몸 전체가 망가졌다는 이 서사는 작품의 비극성을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적 증언으로 전환한다.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은 호영의 어머니 정연자 박사다. 아들의 “살려 달라”는 편지를 뒤늦게 받은 어머니는 청진에서 영변까지 먼 길을 떠난다. 이 어머니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아들을 살려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작품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가족애의 가장 원초적인 힘을 드러낸다. 동시에 이러한 여정은 북한 사회의 피폐한 현실을 가시화한다. 1990년대 초 북한은 이미 식량난과 체제 균열의 징후 속에 있었고, 군인들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통강냉이를 소화하지 못해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현실이 펼쳐진다. 국가는 핵개발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반면, 정작 그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의 몸은 굶주림과 병으로 붕괴하고 있다.

소설은 피폭의 현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요양병원에는 신체가 잘리고 패이며 온몸이 헐어 죽어가는 군인들이 가득하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명이 짧아지거나 기형아가 태어나는 일이 벌어진다. 산 좋고 물 맑고 경치 좋던 약산 동대는 핵기지가 들어선 뒤 방사능에 오염된 죽음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약산의 진달래』라는 제목은 강한 상징성을 획득한다. 진달래는 여전히 피고 산천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 아래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이 묻혀 있다. 이 작품은 진달래의 서정성과 핵의 참혹함을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소설이다.

후반부로 갈수록 작품은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김정일 체제하 북한 사회 전체의 부자유를 드러낸다. 감시와 통제, 은폐와 조작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해 질문할 수조차 없다.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삶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곳에서 철학도 사랑도 자유도 사치가 된다. 결국 호영은 병든 몸으로 청춘을 소진하고, 은아 역시 폭력의 위기 속으로 내몰린다. 소설은 끝내 왜 이 젊은이들의 삶이 국가의 비밀과 거짓을 위해 소모되어야 했는가를 묻는다.

결국 『약산의 진달래』는 핵 개발이라는 거대한 정치의 서사 뒤에 숨겨진 인간의 고통을 복원하는 작품이다. 국기가 아니라 사람을, 체제가 아니라 가족을, 이념이 아니라 청춘의 목숨을 바라보게 만드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단순히 북한 현실을 고발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한 개인의 아픔을 통해 인간과 국가, 진실과 은폐, 사랑과 폭력의 문제를 다시 사유하게 만든다.

탈북작가 문학의 가장 큰 자산은 자신의 체험에 있다. 그러나 체험이 그대로 문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언어와 형식을 얻어 타인의 마음을 울릴 때 비로소 문학이 된다. 『약산의 진달래』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귀중한 작품이다. 작가 자신의 가족사라는 가장 아픈 사연을 소설로 형상화하면서, 그것을 우리 시대의 보편적 질문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증언이면서 동시에 문학과, 고백이면서 동시에 예술이다.

4. 이지명 장편소설 『철과 흙』

다음으로 주목할 작품은 이지명의 『철과 흙』(예곡, 2024)이다. 이 작품은 흔히 예상되는 탈북소설과는 상당히 다른 결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탈북소설이라 하면 체제 비판이나 증언의 성격이 강한 작품을 연상하게 되지만, 『철과 흙』은 그러한 틀을 넘어서는 독특한 성격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말해 이 작품은 추리소설의 문법을 통해 탈북서사를 새롭게 구성한 작품이다.

작가 이지명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중학교 졸업 뒤 약 10년에 가까운 군 생활을 했고 이후 탄광에서 일했다. 그의 삶 자체가 이미 극한적 서사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탄광 노동 중 손가락을 잃었고, 탈북 이후 중국에서 일하면서도 다시 손가락을 다쳤다. 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는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삶을 겪은 사람이며, 그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다. 더욱이 그는 북한에서 이미 작가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희곡을 쓰고 선전부 소속 작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즉, 한국에 와서 처음 문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작가적 훈련과 감각을 갖춘 상태에서 탈북 이후의 경험이 더해진 경우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단순한 체험 기록이 아니라, 숙련된 서사 감각 위에 경험이 결합된 결과물로 읽어야 한다.

『철과 흙』이라는 제목은 상징적이다. ‘철’은 차갑고 날카로운 세계를 뜻한다. 이는 북한 체제의 냉혹함이기도 하고, 생존을 위해 서로를 밀어내야 하는 비정한 현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생명을 길러내는 토양, 어머니와 사랑을 상징한다. 결국 이 제목은 이 소설이 냉혹한 현실과 인간적 온기를 동시에 붙들고 있는 작품임을 암시한다.

이 소설의 중심에는 태수와 춘희라는 두 인물이 있다. 배경은 함경남도의 탄광·광산 지대이다. 태수는 탄광의 갱장이고, 춘희는 농장의 이발사다. 설정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두

인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비밀을 품고 있다. 여기서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드러난다. 이 작품은 철저하게 비밀과 은폐, 그리고 그 해명 과정으로 이루어진 서사, 곧 추리소설적 구조를 지닌다.

예컨대 태수는 군대 시절의 혹독한 훈련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그는 친구를 통해 아내에게 아이를 갖게 한다. 이 사실 자체가 하나의 충격적인 비밀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겉으로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 춘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독자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바로 이 질문이 독자를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된다.

춘희는 이 소설의 핵심 인물이다. 그녀는 아름답고 매혹적이면서도 매우 미스터리한 존재이다. 단순한 농장 이발사라고 보기 어려운 능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을 조종하고 관계를 엮어가는 중심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어떤 출생의 비밀을 품고 있다. 이처럼 작품 속 인물들은 거의 모두 비밀을 지니고 있다. 가족 관계, 출생의 내력, 과거 사건들이 서로 얽히고 겹치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을 형성한다. 독자는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서사의 심층으로 향하게 된다. 이 점에서 『철과 흙』은 탈북소설이면서 동시에 본격적인 추리소설의 재미를 갖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성취는 단지 서사적 흥미에 있지 않다. 『철과 흙』은 북한 사회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다. 기존의 많은 탈북서사가 이념이나 체제 중심의 인간상을 그렸다면, 이 작품은 욕망과 감정, 정념을 가진 인간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 소설 속 인물들은 이념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욕망 때문에 움직이며, 생존 때문에 움직인다.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 살아남기 위해 타협하는 사람, 그 속에서도 연민과 사랑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뒤얽혀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북한 사회를 단순한 도식으로 재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곳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간, 일종의 ‘인간시장’과 같은 장소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 작품은 강렬한 현장성을 지닌다. 탄광 노동의 구체적 현실, 광산촌의 사회 구조, 외화벌이 체계, 법과 불법의 경계, 북한 내부로 스며드는 자본주의적 요소들까지 매우 생생하게 묘사된다. 이러한 현장성은 작가 자신의 체험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작가는 이 현실을 직접적으로 고발하지 않는다. 대신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 비밀을 해명해 가는 과정을 통해 독자가 자연스럽게 그 사회의 모순과 병리를 감지하게 만든다. 바로 이 점이 이 작품의 미학적 성취이다.

결국 『철과 흙』은 탈북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체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욕망과 관계, 비밀과 사랑을 중심에 놓음으로써 추리소설의 문법을 활용해 강한 몰입과 깊은 인식을 동시에 제공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탈북문학의 한 사례가 아니라, 오늘의 한국문학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성취라 할 수 있다. 이지명은 이 작품을 통해 탈북소설의 지평을 확장했으며, 동시에 한국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5. 맺음말

본고는 탈북문학의 개념적 범주와 그 미학적·윤리적 함의를 검토하고, 김유경의 『인간모독소』, 김정애의 『약산의 진달래』, 이지명의 『철과 흙』을 중심으로 탈북서사의 다양한 전개 양상을 분석하였다. 탈북문학은 북한을 이탈한 개인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학

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지만, 그 성격은 단일한 범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디아스포라 문학(diaspora literature), 난민문학(refugee literature), 반체제문학(dissident literature), 저항문학(resistance literature), 증언문학(testimony literature) 등의 개념과 교차하며 복합적인 층위를 형성한다.

김유경의 『인간모독소』는 정치범 수용소라는 극한적 공간을 통해 국가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박탈하고 소모하는가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연좌제, 강제노동, 굶주림, 폭력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인간이 생존의 최소 조건으로 환원되는 상황을 드러낸다. 동시에 수용소라는 제도가 개인의 삶을 넘어 세대 재생산의 층위까지 어떻게 왜곡시키는가를 제시한다. 다만 후반부의 화해 서사는 이러한 비판적 긴장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한계를 드러낸다.

김정애의 『약산의 진달래』는 핵 개발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 이면에 존재하는 개인적 희생과 가족적 비극을 전면화한다. 이 작품은 방사능 피폭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중심으로, 국가의 은폐와 폭력이 개인의 신체와 생명을 어떻게 침식하는가를 서사화한다. 동시에 사랑 서사를 매개로 하여 정치적 현실과 인간적 감정의 교차를 보여주며, 증언과 문학적 형상화가 결합된 텍스트로 기능한다.

이지명의 『철과 흙』은 탈북문학의 서사적 확장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작품은 추리소설의 서사 구조를 활용하여 북한 사회를 재현하며, 체제 비판의 직접적 서술을 회피하는 대신 인물 간의 관계, 욕망, 비밀의 전개를 통해 사회적 모순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탈북문학이 단순한 증언의 차원을 넘어 장르적 실험과 미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탈북문학이 단순한 현실 고발이나 체험 기록에 머무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북문학은 북한 사회의 내부를 증언하는 동시에, 현대 세계에서 국가 권력과 인간 생명, 폭력과 생존의 문제를 재사유하게 만드는 문학적 장을 형성한다. 따라서 탈북문학은 특정 지역이나 체제에 국한된 특수한 문학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보편적 조건을 드러내는 서사로 확장될 수 있다.

아울러 탈북문학은 한국문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문학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경계와 이동, 배제와 귀속, 기억과 증언이라는 보편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점에서 탈북문학은 한국문학 내부의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세계문학적 맥락과의 접점을 형성한다.

결국 탈북문학의 의의는 체험의 직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어와 형식을 통해 타자에게 전달 가능한 서사로 재구성되는 데 있다. 탈북문학은 개인의 기억을 집단적 서사로 전환하며, 고통의 경험을 미학적 형식 속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탈북문학은 증언성과 문학적성을 동시에 요구받는 장르이며, 그 긴장 속에서 고유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 나간다.

따라서 탈북문학은 한국문학의 한 하위 범주로서가 아니라, 현대문학 전반의 문제의식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계기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간과 국가, 폭력과 윤리, 기억과 서사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하는 비평적 장을 형성하며, 향후 한국문학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제2세션>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 성찰과 전망

종합토론

